



2015.11

정대협



· 발행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주소: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11길 12 (상선동 39-3) · 전화: 02365-4016 · 전승: 02365-4017 www.womenandwar.net · 편집디자인: 수원시인신문

정대협 25주년, 다시 해방을! 외칩니다.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

70년 동안 기다려온 해방입니다. 피해자들은 말합니다.

“70년 전 8월 15일, 우리는 그날이 진짜 해방인 줄 알았습니다. 일본군 인들은 더 이상 우리를 찾아오지 않았고, 전쟁터에 우리만 버려졌습니다. 버려지고 나서야 우리는 자유였습니다. 힘겹게 찾아 돌아온 집, 당연히 잘못을 저지른 일본정부가 우리에게 사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잘못을 부정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돈 벌러 그 악몽 같은 전쟁터로 떠나야 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피해자임을, 우리의 생존 자체가 증거라는 것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동네사람들한테 위로를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우리가 부끄럽다며 침묵하라고 했습니다. 한국정부 또한 피해자들에게는 높고 압박한 벽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을 투명 국민 취급해온 시간이 반세기 이상, 그 압박 앞에서 두들겼습니다. “문을 열어라! 우리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우리의 인권을 보호해 달라. 외교정책에 반영해 달라!” 때로는 사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발 해주세요. 우리가 여기서 소리치고 있으니 우리 소리를 들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온 우리의 70년은 해방이 아니었습니다.

미군을 비롯하여 전쟁을 멈추게 한 연합국 나라들은 우리에게 마치 개 선장군처럼, 선행과 은혜를 베풀 것처럼 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들도 우리의 아픔은 오히려 물어두고, 가해자 편을 들었습니다. 범죄자를 살려주고, 그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은 다시 일본에게 전쟁을 부추기는 세력이 되어 우리에게 공포를 갖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에게 평화는 없었을까요? 자국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고, 전쟁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은 우리 여성들의 인

권문제에는 관심이 없었을까요?

모두들 우리보고 다 감당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부끄럽다 했습니다. 그렇게 70년의 세월은 여전히 우리에게 아픈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과의 사이에 두꺼운 벽을 만들고 그 속에 우리의 날개를 꺾은 채 몸을 숨겨야 했습니다. 답답했지만 그 속에 웅크리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25년의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꺾었던 날개를 펴고 해방이라는 것을 꿈꿀 수 있게 만들었던 세월 25년. 전후 반세기 동안 사회문제화되지 않았던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여성인권 운동으로, 역사의 정의를 실현하는 운동으로, 평화운동으로 열어내고, 남북과 함께, 아시아 여성들과 함께, 세계 여성인권 활동가들과 함께해온 정대협 25년이었습니다. 25년 동안 걸어온 한 해 한 해, 그 구비마다 우리의 눈물, 한숨, 분노가 안 뿌려진 날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웃음과 환호, 희망을 안고 살 수 있었던 25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세계와 함께 일본정부에게 외쳤습니다. “사죄하라! 법적 배상하라! 올바른 역사교육으로 재발방지에 힘쓰라! 다시는 일본군‘위안부’ 역사를 부정하는 망언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라!”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에 세계가 함께하게 한 우리의 25년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마침내 해방을 이루고, 우리 역사에 정의를 실현시키겠다는 의지를 심었습니다. 평화로에서 수요일마다 정의를 향한 목소리를 외친 지도 어느덧 1200회를 넘어섰고, 24년의 세월을 겪어냈습니다.

“한국 여성들 정신 차리시오! 또 다시 당합니다.” 피해자와 피해자를 둘러싼 한국사회, 국제사회의 무거운 침묵을 깨고, 한국사회의 편견

을 깨고, 당당한 생존자로 대중 앞에 나서셨던 김학순 할머니의 잊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정신이 나태해 지다가도 저 말씀 앞에 서면 어느새 온몸의 신경선이 곳곳하게 서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김학순 할머니의 뒤를 이어 우리 활동의 주역이 되신 생존자들! 그들은 그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과 같은 아픔을 또 당하려고 합니까? 절대로 우리 후손들은 우리와 같은 피해를 겪어서는 안 됩니다.” 사회가 그들에게 준 것은 하나도 없었음에도 그들은 그렇게 우리 사회를 향한 뜨거운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사회가 그들을 향해 여전히 부끄러운 여자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을 때에도 그들은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우리들의 인권을 회복해 달라!”

우리는 이런 피해자들의 호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25년을 넘어 다시 해방으로 나아갈 겁니다. 우리는 몸으로 선포할 것입니다. 해방을! 일제 식민지를 청산하고, 해방의 문을 우리 스스로 열어젖힐 겁니다! 민족 분단의 아픔을 평화로, 통일로 만들어 이산의 아픔을 평생 안고 살아오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려고 합니다. 전쟁과 폭력의 역사를 닫고, 평화와 정의의 물결을 타고자 합니다. 전쟁 속에서 성폭력당하고 고통받는 여성들과 아이들에게 우리의 연대의 손을 뻗치고자 합니다.

지난 25년의 시간들에 엉겨 붙은 만남들이 역사가 되어 그렇게 우리에게 희망을, 미래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해방이 멀지 않았다고, 통일이 멀지 않았다고, 거꾸로 흐르고 있는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울 날이 멀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25년에 머물러 앉아서 안일하게 해방을 맞이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새로 살아갈 ‘25+’ 날들에는 25년보다 더 적극적으로 외칠 것입니다. “해방을!” “평화를!”



기고

제주와 오키나와, 그리고 일본의 안보법제

집단적 자위권을 둘러싼 일본의 해석개헌과 그것의 후속조치로서의 안보법제의 성립은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정세에 심각한 갈등과 위기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이것은 단지 일본의 우경화만을 의미하기보다는 1945년 이후 성립된 이른바 전후체제의 인위적인 해소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전전(戰前) 일본의 파시즘과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역사 수정주의를 정당화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현재의 동아시아 정세의 급박함은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로의 회귀' 전략이 부상하는 중국 패권의 봉쇄라는 명백한 목표 아래 진행되고 있고, 이것의 군사적인 발미로 천안함 사건과 북핵문제의 불안정성을 이유로 들고 있다는 점에 있다. 미국의 입장은 경제·군사적으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동아시아에서의 미국패권을 견고히 함으로써, 자국의 국가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목표가 있을 것이다.

그것의 하위 파트너 기능을 하는 것이 아베의 일본이며, 한국은 제국주의-식민지의 과거사와 무관하게 미일 안보체제의 하위파트너로서의 한미일 삼각동맹의 일원으로 포섭되어, 북중러의 남하와 영향권 강화를 봉쇄하겠다는 것이 현금의 상황일 것이다.

이러한 패권 또는 헤게모니 변형 상황 속에서 한국은 남북 간의 평화와 미중 간의 갈등을 중재·조정하면서 동아시아 역내의 평화적 공존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입장이겠지만, 현재의 집권세력에게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힘과 역량이 있다고는 판단되지 않으며, 반대로 이러한 구조변화를 수동적으로 추수하고 있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이 지구적 또는 세계적 패권관계의 구조변형은 필연적으로, 풀뿌리 민중들의 삶에 거대한 구조적 압력으로 작용하기 십상이며, 특히 제주와 오키나와 같은 주권의 경계가 마주치는 경계에서 파열음을 내는 일이 사실상 강제되는 것이다.

미중 패권 다툼의 와중에 오키나와의 군사기지화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기노완시의 후텐마기지를 북부 나고시의 해노코로 이전하려는 일미 정부의 강권정책은 오키나와현과 현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완강하게 밀어붙여지고 있다.

나고시장 선거, 중의원 선거, 오키나와 현지사 선거에서 오키나와 주민들은 일관되게 신기지 건설 반대파를 압도적으로 지지했다. 새로운 오키나와 현지사가 된 오나가 다케시는 UN을 포함한 국제기구는 물론, 일본 내부에서도 평화를 갈망하는 오키나와인들의 '자기결정권'과 '아이덴티티'를 강조하면서, 기지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일본의 중앙정부는 행정대집행 등을 통해 기지건설 강행을 추진하면서, 오키나와 현민들이 "오키나와가 식민지인가"라는 격렬한 항의행동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제주 강정에 건설되는 해군기지 역시 큰 틀에서 보면, 미국의 동아시아 개입정책과 일정하게 관련을 맺고 있다.

애초 미관 복합군항으로 건설될 예정이었던 강정의 해군 기지는 현재의 기지건설과 숙소건설의 현황을 보면, 상주 인원 3000여 명이 넘는 대규모 해군과 해병대 전단이 배치될 가능성이 높은 전략적 거점으로 기능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제주의 해군기지는 단순히 한국군의 영해상의 안전보장을 목표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군사적 활동의 범주가 동중국해를 포함한 광역적인 미군의 안보전략의 하위파트너로서 기능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미국의 태평양에서의 전력전개는 미국,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 인도, 호주 등의 동맹국 또는 전략적 동맹관계의 활용을 통해, 아시아 태평양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중국의 해상진출을 봉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목적 아래서 북한위협론은 단골메뉴로 등장한다.

제주와 오키나와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기지의 섬'으로의 변화는 이러한 일련의 구조적 변화의 일환으로 전개되고 있는 사태이며, 따라서 풀뿌리 민중의 편에서는 이러한 구조에 저항하면서 평화와 민주주의를 역설하는 일이 필요하다. 특히 일본의 '전쟁국가로'의 회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해야 하는데, 이것은 한국과 일본이라는 국가 간 관계에서의 문제물로 풀기보다는 한일 양 시민적 차원에서의 연대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모든 국가는 내셔널리즘을 인위적으로 증폭시키고 의인화된 국가언설을 통해, 평화와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시민들의 정념을 분단시키고 적대적인 갈등을 증폭시키는 통치전략을 자주 활용한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한일의 시민들은 평화와 민주주의, 공존의 가치를 고양하기 위한 지적 협력과 소통의 활동을 더욱 강력하게 촉진해야 한다. 동아시아 평화는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신념으로서만 보존할 수 있다. 어려운 시절이지만, 희망도 힘이 세다고 믿고 싶다.



이명원

문학평론가 /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정대협 25년의 활동사

1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1992년 1월 8일부터 시작한 수요시위는 매주 수요일 낮 12시에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리며, 1993년 12월 22일 100차, 2002년 3월 13일 500차, 2011년 12월 14일 1,000차를 지나 2015년 10월 14일 1,200차에 이르렀습니다.

19개 회원단체와 수많은 시민사회 단체들이 주관하는 수요시위는 중고등학교, 시민단체, 교회, 회사, 수녀회 등 여러 단체들이 꾸준히 참여하고, 개인적으로도 어린이, 청소년, 일반인 등 국내외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2만여 명이 참여하는,

인권과 평화 교육의 살아 있는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8월 14일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故 김학순 할머니, 일본군 '위안부' 피해 첫 공개증언 날, 2013년 11차 아시아연대회의에서 만들어졌으며 2015년에 3차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을 맞음)과 세계여성의 날 등 특별한 기념일에는 세계연대집회로 진행되어 여러 나라, 도시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한목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시작한 세계연대집회는 일본, 대만, 필리핀, 홍콩,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미국, 독일, 캐나다, 영국, 스위스, 네덜란드, 오스트레일리아, 이탈리아, 스코틀랜드, 벨기에 등의 여러 도시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을 깨닫고 사죄할 수 있어야 진짜 사람입니다."
- 김학순(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

2 생존자 복지활동



역사의 산증인인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들은 대부분 80-90대에 이르는 고령으로, 2015년 11월 현재 한국정부에 등록된 238분 중 47분만이 생존해 계십니다. 정대협은 고령의 생존자들을 돕기 위한 방문, 상담, 인권캠프, 치유 프로그램, 물품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들에 대한 정기적 전화상담과 방문활동을 하고, 지방에 계시는 할머니들은 지역 재가자원활동가가 방문해 벗이 되도록 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혼자 지내기 힘든 분들을 위해 쉼터 '평화의우리집'을 마련하였습니다.



3 대한국정부 활동

한국정부 차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범죄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도록 촉구하여 1992년 1월 24일 외무부 내에 '정대협실무대책반'을 만들어서, 정부 각 부처가 문서자료를 조사하고 내무부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정신대 피해자 신고'를 접수받았습니다.

대부분 생존자들의 경제 상황이 어려웠으므로 생활안정지원법(1993년) 제정을 촉구하여 임대아파트(11-18평)를 제공하고, 일본 전범의 출입국금지법안(1997년)을 통과시키는 데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1998년 5월, 법적 배상을 회피하기 쉬운 수단으로 일본정부가 민간차원의 위로금인 '여성들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Asian Women's Fund)'을 지급하려는 데 대응하여 민간차원에서 범국민모금을 두 차례(1997, 1998년)에 걸쳐 실시하여 위로금을 지급하고, 동시에 한국정부로 하여금 정대협 모금액에 정부예산을 추가하여 4,30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토록 활동하여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2006년에는 문제해결을 위해 일본정부에 적극



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한국정부에 대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

하고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촉구하는 활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재판소에 제출하였고, 6년 만인 2011년 8월 30일에 헌법재판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하지 않은 한국정부의 부작위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외에도 한국정부가 대일외교 및 국제기구 활동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

4 남북 연대활동



정대협은 북한과의 연대활동도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함께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류하면서 남북 사이의 신뢰도 한층 쌓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교류는 1991년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이라는 남북 여성 교류에서 처음 제안되었고, 정대협과 북측의 조대위(조선일본군성노예및강제연행자피해자문제대책위원회)는 유엔 활동과 아시아연대회의, 그 밖의 일본군'위안부' 관련 여러 국제회의에 함께 참여하며 남북의 교류와 협력이 점차 긴밀해졌습니다.

2000년 법정 당시에는 남북 공동 기소 팀을 구성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교류가 줄어들 수밖에 없지만 꾸준히 북측과 만나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에 대한 논의를 하였고, 2015년에도 아시아연대회의를 앞두고 남북공동활동을 위한 남북 실무대표단회의를 하였습니다.

"나는 어제날의 일본정부가 저지른 죄행, 그것을 외면하고 있는 오늘날의 일본정부가 다 똑같이 국제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 리현숙(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북측)

5 국제 연대활동

정대협은 1992년 유엔인권위원회에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상정한 이래 전시 중 여성인권 유린의 문제로 국제사회의 지지와 연대를 확산시켜 왔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유엔 특별보고관의 조사활동에 따라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국제법 위반 행위임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일본정부의 책임 이행을 권고하는 보고서 채택이 이루어졌으며, 이후 현재까지 유엔 인권이사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와 국제법률가협회, 국제노동기구(ILO) 전문가위원회 등 국제기구의 권고가 잇따랐습니다.

1993년 빈 세계인권대회와 1995년 북경 세계여성대회에서도 정대협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결의문에 포함시키는 등 국제 이슈로 만들어냈고, 1992년부터 꾸준히 한국, 일본, 중국, 필리핀 등 아시아 나라들과 함께 아시아 연대회의(Asian Solidarity Conference)를 열어 공동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14년 12차 아시아연대회의부터는 일본정부에 대한 요구안을 만들어 일본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2000년 12월 7일부터 12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린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은 세계 여성과 시민들의 연대 속에서 일본군성노예제도에 대한 전쟁범죄의 책임을 묻고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기 위한 상징적인 국제인

권법정으로, 최종판결을 통해 히로히토 등 일본군'위안부' 범죄에 대한 책임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글로벌 캠페인은 세계 각지에서 지금도 다양한 방법으로 펼쳐지고 있으며, 2007년 미국 하원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정부의 사죄를 촉구하는 결



의안이 채택된 이후 각국 의회와 한국, 일본 등 지방의회에서도 결의안 채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과 함께 일본, 미국, 영국, 네덜란드, 독일, 노르웨이 등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과 전시학성폭력 방지를 위한 해외캠페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여성에 대한 사법정의와 배상이 이뤄지지 않는 한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계속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과거사가 아니라 당면한 현재의 문제이다." - 나비 필레이(유엔인권회고대표, 2014)

6 1억인 서명운동



전 세계 곳곳에서 1억인 서명운동도 진행 중입니다. 전 세계에 일본의 전쟁범죄를 알리고 이 문제가 한일 양국간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공통의 여성인권과 평화 문제임을 인식시키며, 지금까지도 일본군이 저지른 전쟁범죄를 외면하고 있는 일본정부에게 전 세계가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 세계 1억인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시작한 1억인 서명운동은 국내는 물론 일본, 미국, 독일 등 세계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2014년 2차 세계 일본군'위안부' 기림일에 1,562,417개의 서명을 일본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이 문제를 전 세계가 알고 해결될 때까지 서명은 계속될 것입니다.



7 방문교육 및 시민 캠페인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 운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다시는 이와 같은 인권유린 범죄가 인류역사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후세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교육하는 것입니다. 이에 정대협은 교육을 요청하는 전국의 학교, 회사, 단체, 동아리 등에 대한 방문교육을 통하여 국내인,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일본군'위안부' 역사를 알려내고 있습니다. 또한 기획 캠페인과 전시회 등을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학생 및 시민들의 참여와 연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9 나비기금 모금 및 해외 전시성폭력 피해 여성 지원 활동



나비기금이란 전시성폭력 피해 여성들을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전 세계 전쟁의 한가운데에서 성폭력을 당하고 평생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여성들의 아픔을 함께하기 위해 2012년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 김복동 할머니와 김원옥 할머니가 일본정부로부터 법적 배상을 받으면 그 전액을 전시성폭력 피해 여성들을 돕기 위해 기부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태어난 것이 나비기금입니다. 정대협은 할머니들의 숭고한 뜻에 따라 나비기금을 모아 콩고, 베트남 등의 전시성폭력 피해 여성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전시성폭력 방지에 뜻을 함께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나비기금은 더 많은 피해자들이 조금 더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뚝뚝 날아가고 있습니다.

"열다섯 살에 일본군성노예가 되어 대만으로
남양군도로 여러 전쟁터로 끌려 다녔습니다.
지금 나보다 더 딱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을 위해 내가 받게 될 배상금을
써달라고 했어요."
- 김복동(일본군'위안부' 피해 생존자)

8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은 일본군'위안부' 생존자들이 겪었던 역사를 기억하고 교육하며,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는 공간입니다. 또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전시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대하며 전쟁과 여성폭력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나가는 행동하는 박물관입니다. 2003년에 박물관건립위원회가 출범하여 9년여 동안 홍보와 시민 모금을 한 끝에 2012년 5월 5일 개관하였습니다. 현재 일반 관람은 물론 학교, 단체, 동아리 단위 관람 및 교육 활동, 월례세미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0 나비네트워크 활동과 평화비 건립 활동

'나비'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과 모든 여성들이 차별과 억압, 폭력으로 부터 해방되어 자유롭게 날갯짓하기를 염원하는 의미를 담은 상징물입니다. 전국 각 지역에서 이 염원을 함께 알릴 나비들이 조직되어 폭넓은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평화나비네트워크, 희망나비, 청년나비, 대흥나비, 수원나비, 평화나비대전행동, 해남나비, 워싱턴나비, LA나비, 하늘나비 등은 학교 캠퍼스나 각 지역에서, 또는 온라인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1억인 서명운동, 시위, 캠페인, 콘서트, 평화기행, 지역에 살고 있는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방문활동 등 여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소녀의 모습을 한 평화비는 2011년 12월 14일 1000차 수요시위에서 일본 대사관 앞에 세워진 후 13년, 14년에 걸쳐 몇몇 지역에서 세워지다가 광복 70주년인 2015년에는 14개 지역에서 세워졌고 올해 안에 또 몇 곳에 건립될 예정이며 해외에서도 평화비 건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역 시민, 단체들이 함께 연대하고 교류하며 전쟁의 폭력성과 비인간성, 인권과 평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함께 외치는 역사, 평화, 인권 교육의 상징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대협은 이러한 평화비 건립 활동과 정에서 강연을 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등 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소식

할머니~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 공점엽 할머니(96세)



매주 수요일,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는 수요시위가 열리고 해남에서는 할머니 찾아가는 날, 살포시 눈 감고 주무시는 할머니. 조용히 들여다보고 있노라니 기운을 느끼셨는지 눈을 뜨고 화들짝 놀라시며 “와따~~ 반갑 거~” 손을 잡고 얼굴로 가져가십니다. 한쪽이 마비가 되어 거동을 전혀 못 하시고 침대에 누워 계실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3월 병원에 처음 오실 때에 비하면 기적을 또 한 번 경험하고 있는 듯합니다. 소화력도 좋아져서 잘 드시고 기력도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할머니 좋아하시는 무화과, 홍시 등 한 개씩 똑똑딱 드려주시면 우리 나비들은 황홀할 만큼 행복해집니다. **해남나비 이명숙**

* 곽예남 할머니(91세)



요양병원에 계시는 할머니는 조카에게 만날 집에 가고 싶다고 보냅니다.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싶다고 하시면서요. 할머니의 어머니는 아주 예전에 돌아가셨지만, 할머니 머릿속에서는 할머니는 여전히 어린 소녀이고 엄마는 맛있는 밥을 해주시고 귀여워주시는 정다운 엄마인것입니다. 얼마 전 엉덩이 쪽 생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으시고 회복 중이신 할머니. 그런데 또 폐도 안 좋다고 합니다. 얼른 건강해지셔서 그렇게 가고 싶어 하시던 집에서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

* 길원옥 할머니(88세)



88세인 지금까지도 수요시위에 거의 빠짐없이 참석하시는 할머니는 거실 창문 앞에 있는 어항 안의 자그마한 물고기들을 보시는 게 취미입니다. 수요시위에 가기 위해 모시러 센터에 가면 늘 그 자리에서 물고기들을 보시다가 창문을 통해 반가이 맞아주십니다. 같이 옆에서 보고 있으면 한참을 들여다보시다가 가끔 큰 놈이 작은 놈을 괴롭힌다고 뭐라 하시기도 합니다. 할머니는 얼마 전 갑자기 열이 많이 올라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다행히 퇴원하셨습니다. 그래도 연세가 있으신지라 퇴원이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요. 할머니 건강하셔야 해요~.

* 김경순 할머니(90세)



할머니는 가끔 사무실이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십니다. 다들 건강하냐 물어봐 주시고 언제 올 거냐고 물으시고요. “할머니 며칠에 찾아뵙게요~” 하고 말씀드리면 “아이, 좋아~” 라고 하시며 아이처럼 웃으시

니다. 할머니 웃음소리를 듣고 있으면 저절로 기분이 좋아져 어느새 같이 웃을 짓습니다. 수요일에 하는 데모에 나가야 되는데 다리가 아파 못 나가신다며 안타까워하시는 할머니께 “이렇게 건강히 계시 주세요. 저희가 열심히 할게요~” 하고 말씀드리면 또 한 번 웃어주십니다.

* 김복동 할머니(90세)



할머니는 세상 돌아가는 것에 아주 밝으십니다. 그날그날 뉴스를 챙겨 보시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무엇이 잘못되는지 다 꿰뚫어 보십니다. 수요시위에 가는 차 안에서 할머니의 촌철살인 정세 비판을 들으면 속이 다 시원합니다. 할머니는 올해 벌써 일본, 미국, 유럽(노르웨이, 영국, 독일) 등 해외에 세 번이나 가셔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이야기하고 평화를 이야기하셨습니다. 힘들어도 아파도 멈출 줄 모르는 인권운동가 복동 할머니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 김복득 할머니(98세)



할머니는 올해 98세이십니다. 요양병원에 계시지만 올해 초반보다 건강이 많이 나아지셔서 좋아하시는 치킨과 만두, 지짐이를 맛나게 드십니다. 병원 김치가 중국산이라 맛이 없다면 재가방문 활동가님에게 김치를 담가 오라는 주문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끔 자장면도 시켜서 한 그릇 똑딱 드시고요. 할머니들이 음식을 맛있게 잘 드신다는 소식이 가장 반갑습니다. 할머니 이대로 더 건강하셔서 100세 되시는 날 전국적으로 거하게 생신잔치 하자고 할머니와 약속했습니다.

* 김00 할머니(84세)

할머니는 다른 할머니들 안부도 물으시고 정대협 식구들도 잘 있냐고 물어봐 주십니다. 찾아뵈면 늘 먹을 걸 준비해주시고요. 평소에는 운동도 열심히 다니시고 노래도 배우러 다니신답니다. 전화해서 건강 괜찮으시나 여쭙보면 아팠다 괜찮았다 또 아팠다 괜찮았다 한다고 답하십니다. 그래도 활기차게 생활하시며 건강관리에 많이 신경 쓰시는 것 같아 보기 좋습니다.

* 김분이 할머니(89세)

할머니는 요양병원에서 생활하십니다. 팔과 다리가 불편하여 아침마다 재활운동을 해야 하는데 몸이 힘드시니 자주 안 하려고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도 식사도 잘 하시고 의사 표현도 잘하신다니 다행입니다.

* 김양주 할머니(92세)

여름에 찾아뵈었을 때 대표님 손을 꼭 잡고 “나는 불쌍

한 사람이다. 나는 나라를 위해 정신대에 다녀왔다. 나는 외롭다”라는 말을 몇 번을 반복하셔서 우리 마음을 아프게 했던 할머니. 기억이 흐릿해져도 그 아프고 고통스러운 기억만은 계속 할머니를 따라다니나봅니다. 인사하고 나오려는데도 손을 잡고 놓아주시지 않아 한참을 더 눈을 들여다보며 긴 인사를 했습니다.

* 김옥귀 할머니(88세)

할머니께서는 따님과 함께 아파트에서 지내십니다. 평상시에도 동네 할머니들과 잘 어울려 다니시고 최근에는 동네에 있는 경로당에 자주 놀러 다니세요. 여름에는 놀이터에 있는 정자에서, 날이 좀 추워지면 경로당에서, 할머니는 언제나 희망나비가 가면 깔깔깔 웃으시며 맞아주십니다. 그리고 정대협에서 드리는 선물은 꼭 뜯어서 함께 있는 할머니들과 나누시더라고요. 육류를 좋아하시는 할머니께서는 고기를 사가지고 가면 굉장히 좋아하세요^^. **희망나비 김정준**

* 박숙이 할머니(94세)



여름 내내 병원에 계셨습니다. 고문으로 꺾이고 맞은 허리가 많이 아프시다 하고, 가쁜 숨도 몰아쉬시고, 물도 잘 못 삼켜 힘들어하시기도 했습니다. 9월에 할머니가 집에 가고 싶다고 너무 간절히 원하셔서 집으로 돌아오셨고, 심리적 안정을 찾고 난 뒤는 마음도 드시다가 요즘은 밥도 많이 드셔서 눈빛도 팡팡해지고... 한결 밝기가 좋습니다. “아직 입맛이 있는 거 봉개로... 내가 쉽게 죽지는 않을것같다..” 하며 웃으시기도 하네요. 보청기를 착용해도 잘 못 알아들으시고, 혼자 계시는 시간에는 적적하다 하시면서도, 신문 방송에서 찾아오는 것도 구경다시며 복잡한 거 생각하기 싫다고도 하십니다. 남해여성회에서 심리 정서 안정사업을 진행하며 상반기에는 원예 프로그램도 하셨는데, 지금은 앉아서 하는 활동이 어렵고, 회원들이 찾아가면 반기시면서 마음먹은 대로 몸을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을 갑갑해하시고 자존감도 많이 떨어진 상태이십니다. 조금만 더 기운을 내주시면 좋으련만... **남해여성회장 김정화**

* 박차순 할머니(93세)



중국에 거주하시는 할머니는 얼마 전 많이 위독하시다는 소식 있었는데 조금은 괜찮아지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이 아프시다 합니다. 제발 힘내셔서 기운 차리시면 좋겠습니다.

* 박필근 할머니(88세)

포항의 산중턱에 있는 허름한 옛날 집에 혼자 있으신 할머니는 최근 집 마당에 평상이 생겼습니다. 할머니 사위가 뜨거운 태양을 피하시라고 큰 나무 그늘 아래에 지어주었다고 해요. 그 평상에 앉아 산을 오르내리

현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는 단 47분이 생존해 계십니다.
전국 곳곳으로 찾아가 할머니와 만난 이야기, 각 지역 활동가들이 보내온 할머니 소식을 전합니다.



는 차들을 보면서, 화투도 치고 하시면서 하루를 보내신다고 해요. 사람들을 볼 일이 없어서 그런지 희망나비가 가면 더욱 반겨주신답니다. 항상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밥을 해놓으셔서 희망나비들을 행복한 고민에 빠지게 합니다. 또 겨울이 오면 산에 눈이 올 수도 있고,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장작을 하려 다니실 텐데 걱정이예요. 희망나비 김형준

* 송신도 할머니(95세)



일본에 거주하시는 할머니는 현재 심장질환 때문에 병원에서 지내시는데, 얼마 전 퇴원 허락을 받아 재활 훈련을 하고 계십니다. 집으로 돌아가실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계십니다. 재활 훈련을 잘 마치고 댁으로 돌아가셔서 마음 편한 생활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 전국행동 양장자

* 안점순 할머니(88세)



늘 대표님과 정대협 식구들 건강하나 안부 물어주시고 수요 시위 하느라 수고했다 말씀해 주시는 다정하신 할머니는 올해 5월에 심장이 아파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셨습니다. 빈혈도 있어 어지러움을 호소하시고요. 여전히 많이 어지러우시나 여쭙보면 조금 낫다고는 하시지만 영 없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얼른 어지럼증이 싹 가셔서 할머니가 전처럼 밖에도 잘 다니시고 걱정 없이 환히 웃으시면 좋겠습니다.

* 양00 할머니(92세)

할머니는 머리카락이 새하얗게 되신 것 말고는 다 건강해 보입니다. 아프다는 말씀도 거의 안 하신다고 합니다. 귀는 잘 안 들리지만 말씀도 잘하시고 목소리도 퍼렇게 크십니다. 초콜릿을 좋아해서 냉장고나 가까운 서랍에 넣어두시고 수시로 꺼내 드신답니다. 따님과 함께 할머니 좋아하시는 빵 드시러 간다며 나란히 외출하시는데 분홍 윗도리를 맞춘 듯 함께 입은 모녀의 뒷 모습이 다정합니다.

* 윤순만 할머니(85세)



할머니는 흰색을 좋아해서 이불도 흰색이고 옷도 흰색을 자주 입으십니다. 그리고 꽃도 아주 좋아하신다며 방 곳곳에 흰색, 분홍색 꽃이 핀 화분을 놓아두셨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동안 기운이 없고 잘 못 드신다고 하여 걱정입니다. 화사한 꽃 화분을 사가지고 찾아가면 할머니께서 기운이 좀 나실까요?

* 이00 할머니(91세)

할머니를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나오면 꼭 다시 전화를 주십니다. 잘 들어갔나, 아직도 가고 있나, 고생해서 어찌나 하며 너무 안타까워하십니다. 추석 때는 정대협 식구들 먹으라고 두유도 준비해놓았다가 주셔서 정대협 활동가들이랑 자원활동가들이랑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리가 아파서 거동이 어려워 주위에 폐만 끼친다고 자책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늘 어렵습니다.

* 이귀녀 할머니(90세)



할머니께서는 손이 따뜻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갈 때마다 손을 꼭 잡고 절대 놓지 않으시며, 우리의 손이 차가워서 혹 추울까 걱정되어 때려 해도 따뜻한 손 절대 놓지 않고 열게 웃음을 띠십니다. 저는 인 천에 살아서 용인에 자주는 못 가지만, 항상 갈 때마다 잡아주시는 따뜻한 손과 손으로 느껴지는 할머니의 마음이 저희를 따뜻하게 해줍니다. 희망나비 이승연

* 이기정 할머니(91세)



할머니는 현재 충남 지역에 거주하시는 유일한 할머니입니다. 올해 평화비 건립을 추진하는 지역 중에 충남 지역이 몇 군데 있어 그분들이 할머니를 뵙고 싶다 하여 함께 찾아뵈었습니다. 혼자 사시는 할머니 댁에 사람들이 한꺼번에 7~8명이 찾아가면 부담스러울까봐 조심스레 가서 여차저차 사정을 말씀드리니 전혀 안 좋은 기색 없이 반겨주십니다. 어릴 적 일도 세세히 기억나시는지 동네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며 여러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따서 바구니에 담아놓았던 대추도 싸가지고 가라며 한 가득 주셨습니다. 사람들을 만나 대화를 하고 이것저것 주고받으며 밝으신 모습을 보니 반가우면서도 한편 평소에 적적하실 걸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 이막달 할머니(93세)



어느덧 할머니를 찾아뵈는 지도 햇수로 5년째입니다. 할머니는 한 달에 한 번 찾아뵙지만 볼 때마다 늘 그대로의 모습을 하고 계셔서 만날 때마다 마음이 놓이는 분입니다. 하지만 나날

이 반복되는 잦은 통증들이 있기 때문에 볼 때마다 힘든 이야기도 늘 하십니다. 방문 때마다 저희에게 뭐라도 내어주셔야 하는 막달 할머니는 먹고 왔다고 해도 기꺼이 입으로 음식을 넣어주십니다. 그래서 할머니 집만 방문하면 배가 부른 날이 많습니다. 요즘 들어 할머니를 찾아뵙는 날이면 언제까지 할머니의 건강한 모습을 이렇게 찾아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부쩍 들었습니다. 1시간 남짓의 시간 동안 할머니와 한 달 간 쌓였던 이야기를 늘어놓으면 금세 시간이 흘러 아쉬움으로 마무리되곤 합니다. "알하기도 바쁠 텐데 이렇게 찾아줘서 고맙다." 늘 웃음 잃지 않으시고 반겨주시는 할머니 모습에 오히려 저희가 건강하게 찾아볼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5년째 할머니를 만나지만 할머니의 삶을 속속들이 알지 못하는 게 많이 아쉽습니다. 그저 할머니의 건강만 바라면서 또 다음 만남을 기약할 수밖에요. 막달 할머니 건강히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산시민모임 문창현

* 이선옥 할머니(92세)



할머니는 감정 표현이 강하고 활달하신 모습이지만 몸의 통증이 심하고 입맛이 너무 없어 못 드셔서 기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안 좋은 건 스스로를 믿다고 하며 자꾸 왜 이렇게 오래 사는 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력이 떨어지니 마음도 같이 자꾸 처져서 더욱 생각도 부정적으로 되고 기운도 더 없어지는 일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효자 아들 생각하며 오래 살아야겠다고 마음을 먹는다 하시는 할머니. 그렇게 좋은 생각만 하시고 얼른 기운을 차리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수단 할머니(95세)



중국에 거주하시는 할머니는 기억이 많이 흐릿해지셨다고 합니다. 자꾸만 가는 시간 앞에 할머니의 건강이 걱정입니다.

* 이수산 할머니(88세)



입맛이 없어서 오랫동안 밥을 못 드시고 죽을 드셨던 할머니께서 입맛이 돌아와 아홉 달 만에 밥을 드시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할머니들과 이야기하며 입맛, 밥맛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았기에 얼마나 반갑던지요. 할머니와 통화하다가 저 뒤에서 도마 소리가 들리기에 누가 요리하시나 여쭙보니 아들이라 하시며 아드님을 부르시고는 "정답이, 정답이"라며 바꿔주십니다. 찾아뵈면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본정부가 사죄할 때까지 꼭 건강하셔야 합니다.

* 이순덕 할머니(98세)



할머니는 하얗고 살이 많이 빠져 마르신 모습으로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계십니다. “할머니 우리 왔어요~, 기러기 (김원옥) 할머니도 왔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계속 눈을 감고 계시는데 손을 잡아보면 마주 잡아오는 손힘은 강합니다. 가끔 눈도 뜨시고 큰 소리를 내시기도 한답니다. 쉼터 최고 언니 순덕 할머니께서 다시 평화의 우리 집 쉼터로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 이용수 할머니(88세)



언제나 에너지 넘치는 모습으로 국내 이곳저곳으로, 해외 여러 나라로 다니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알리려고 애쓰시는 이용수 할머니. 올해에도 미국에 두 번이나 가서 일본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10월 14일 1200번째 수요시위에서는 사회도 보셨습니다. 찌렁찌렁 큰 소리가 일본대사관을 넘어 일본에까지 다 들리도록 힘차게 구호를 외치셨습니다. “일본정부는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라! 한국정부는 우리 문제 해결에 앞장서라!” 할머니

님의 당당한 외침이 보상받는 날이 어서 오면 좋겠습니다.

* 임정순 할머니(87세)



올해 초 폐에 종양이 있어 수술을 할지 가족들과 의논하였는데 그 결과 그냥 계시게 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여 요양보호사와 같이 잘 지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가을에 접어들고부터 통증이 심해지고 걸지도 못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침에 24시간 간병인을 구해줄 것을 부탁해놓은 상태입니다. 할머니는 사람들을 대할 때 소리를 지르시거나 화를 내기도 하셨는데 요즘은 태도가 많이 부드러워지고 전화를 드리면 보고 싶다고 불러 오라고도 하십니다. 그리고 찾아보니 한참 생각하시다 기억해내시고 기분 좋게 노래도 한 자락 부르십니다.

* 최갑순 할머니(98세)

올해 98세이신 할머니는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눈이 잘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려 늘 주무시듯이 눈을 감고 계십니다. 그래도 바나나나 포도 같은 부드러운 음식을 입에 넣어드리면 잘 드십니다. 위가 건강해서 소화를 잘 시킨다고 합니다. 할머니를 찾아뵙고 큰 소리로

인사를 드렸는데 낮은 목소리라 그런가 별 반응을 안 하시더니 종일 옆에 계시며 돌봐주시는 간병인에게서 귀에 대고 큰 소리로 말씀드리니 대답도 잘해주시고 인영히 가세요, 하고 인사도 해주십니다.

* 최덕례 할머니(94세)

할머니는 노인요양센터에 계십니다. 다리가 좋지 못해 지팡이를 잡고 다니셔야 하는데 그래도 할머니 네 분이 함께 계신 방 안에선 유일하게 걸어 다닐 수 있어 온갖 심부름을 다 하신다고 하소연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사가지고 간 과일과 과자를 할머니들 침대로 일일이 가져다주시며 먹으라 하십니다. 거동이 힘드시니 밖에 외출도 못 하셔서 답답하신 듯합니다. 밖에 잠시 나가셔서 맑은 공기도 쐬고 좋은 것도 구경하고, 그런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 최옥이 할머니(90세)



두 달 만에 뵈 할머니는 머리 카락이 바짝 짙어진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늘 볼 때마다 다 온몸이 아프셔서 아픈 이야기만 하다가 오는 날이 많은데요, 그럴 때면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져서 돌아오는 발걸음이 달라집니다. 이번 방문 때도 역시 할머니가

국회의원 한줄 광고

배재정	25년, 너무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침표 찍는 그날까지 100년이라도 뛰어주세요.
정세균	일본군'위안부' 어르신들의 염원이 풀리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임내현	정대협 25주년을 축하드리며 일본이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스민	소녀들의 목소리가 침묵의 역사가 되지 않고 더 큰 메아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소리 내겠습니다.
노영민	정대협 25주년을 축하합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에 늘 함께하겠습니다.
이목희	정대협 25년의 용기와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 드립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해결을 위해 계속해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조정식	일본의 사죄를 촉구합니다.
김제남	꼭! 일본정부의 진실된 사죄와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정진후	정대협 25년간 지켜온 불꽃은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나비가 해방의 날갯짓을 할 그날을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유은혜	정대협 25년 의로운 길,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일본정부는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라!
최재성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아 후손들이 과거를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석현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워야 합니다.
문병호	해방 70년, 일본의 진정한 반성과 피해 할머니들의 진정한 해방을 기원합니다.
인재근	일본군'위안부' 할머니들의 마음 속 응어리와 한이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오제세	정대협 창립 25주년을 축하드리며,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해결되는 그날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유승희	일본군'위안부'는 인권의 문제입니다. 일본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사죄하고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임수경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기원합니다.
서영교	정부는 역사왜곡 친일교과서 국정화 즉각 포기하고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천정배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이 될 때까지, 그 상처가 아물 때까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전정희	잘못된 역사의 반성이 진정한 사죄입니다.
심재권	일본 정부의 진심어린 사죄와 배상을 촉구합니다.
김영주	일본군'위안부' 할머니들의 마음 속 상처가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전병헌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해 끝까지 앞장서겠습니다.
홍중학	일본이 무릎 꿇고 사죄하는 그날까지 일본군'위안부' 할머니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박원석	일본군'위안부'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를 돌려드리어야 합니다. 정대협을 응원합니다. 함께 싸우겠습니다.
전해철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과 할머니 여러분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이종걸	망각과 부인을 넘어서 기억과 실존으로, 마침내 역사로!
홍영표	진정한 해방을 위해 함께 꿈을 꾸겠습니다.
심상정	'할머니들에게 영예와 인권을!' 정대협 25주년을 축하드리며,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공식적 사죄와 법적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운동에 든 고통을 호소하시면서도 누운 자리를 박차고 뿔뿔해시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는 그 연세가 되셨어도 여전히 자식들을 신경 쓰시는 어머니였고 자신의 고통보다 집안일이 먼저인 모습에 마음이 조금 슬프기도 했습니다. 짧아진 머리카락 탓인지 부쩍 수척해진 것 같은 할머니의 모습이 계속 신경 쓰입니다. 할머니가 매일 맞는 고통을 제가 나눠 가질 수 없지만 그 아픔이 조금 나아져 오늘 밤은 꼭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욕이 할머니 건강하세요.

부산시민모임 문청현

* 하00 할머니(94세)

할머니는 허리를 다쳐 아프신데도 보행보조차를 밀며 열심히 걷기 운동을 하십니다. 가까운 길도 일부러 돌아서 가신답니다. 힘들다고 집에만 있으면 더 못 걷게 된다면서 스스로 건강관리를 아주 열심히 하십니다. 날마다 마을 복지관에 가서 친구들과 어울려 화투도 치시고 점심도 함께 드시고 하루하루 활기차게 보내고 계십니다.

* 함00 할머니(84세)

할머니는 찾아보면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점심 드시러 다니는 이야기, 동네 주민 이야기, 다니시는 병원 의사 이야기 등. 얼마 전에는 어릴 적 수영도 배우고 속기도 배우며 사람들과 사귀고 교

유했던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꿈꾸듯 웃으며 옛날 이야기를 하는 할머니 얼굴에 즐거움이 묻어납니다. 아팠던 시간만큼 행복했던 시간도 있다는 것이 참 다행입니다.

* 하상숙 할머니(89세)



중국에 사시는 하상숙 할머니는 올해 5월에 열린 아시아연대회의에 참가하셨습니다. 비록 지팡이를 짚고 조금씩 걸으시지만 고국 땅에 오셔서 다른 할머니들도 만나시고 모처럼 친척들도 만나 오

בות한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정대협 사무실로 전화하셔서 필요한 게 있다 하시더니 김, 미역, 누룽지탕 사탕 등을 말씀하십니다. 가끔 그렇게 보내 달라 하시는 게 늘 정해져 있는가봅니다. 중국에 살고 계셔도 역시 이 땅의 맛을 못 잊으시는 것 같습니다.

* 나눔의 집 강일출, 김군자, 김순옥, 김정분, 박옥선, 유희남, 이옥선, 이옥선(보은), 정복수, 하00 할머니



나눔의 집에는 현재 10분이 계십니다. 찾아보면 휠체어를 타고, 지팡이를 짚고 거실에 나와 반갑게 맞아주십니다. 이야기가 하고 싶어 손을 끌어당기시고, 인사드리고 나올 때는 현관까지 나와 손을 흔들어주십니다. 하지만 기운이 없어 침대에 누워 계시는 몇 분 할머니들을 보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불과 2~3년 전만 해도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수요시위에도 나오시고 함께 나들이도 다니셨는데 할머니들에게 2~3년은 참 긴 시간인가봅니다. 그래도 할머니들이 조금 더 힘을 내시기를 바라봅니다.

2015년 돌아가신 할머니 8분

* 황선순 할머니(향년 90세)_ 1월 26일

할머니는 1926년 전남 장성에서 태어나셨으며 17세 무렵에 고모 집으로 밥을 얻어먹으러 가던 중 부산에 있는 공장에 취직시켜주겠다는 남자들의 말에 속아 따라 가게 되었습니다. 부산, 일본을 거쳐 남태평양 나우르섬의 위안소에 동원되었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약 3년간 일본군 위안부로 생활하셨습니다. 해방 후 고향으로 돌아와 오랜 시간 지독한 가난과 대상포진, 뇌경색, 당뇨 등 여러 질병으로 힘든 삶을 사셨던 할머니는 그럼에도 늘 정이 많고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 000 할머니_ 1월 31일

할머니는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생전에 할머니와 보호자 분들께서 피해사실이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다른 사실은 밝히지 못합니다.

* 이호순 할머니(향년 91세)_ 5월 27일

1925년 경남 의령군에서 태어나신 할머니는 17세 무렵 갑자기 집에 돌아온 일본군 2명에게 부산, 일본을 거쳐 대만, 중국, 싱가포르, 베트남으로 끌려다니며 약 3년간 일본군 위안부로 생활하셨습니다. 그러는 동안 말을 듣지 않는다고 고문을 당하고 매를 맞는 등 큰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해방된 후 부산을 거쳐 마산으로 가서 남의 집살이를 하며 집으로는 가지 못하셨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 김달선 할머니(향년 91세)_ 6월 11일

할머니는 1925년 경북 포항에서 3남 3녀 중 장녀(둘째)

로 태어나셨습니다. 1943년에 어머니를 따라 흥해시장에서 청어를 팔던 중, 길거리에서 일본 경찰에게 끌려가 미안마로 가셨고, 귀국 때까지 일본군의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하셨습니다. 45년 해방 후 마지막 배로 부산에 도착했으나 아파서 2년 동안 고향으로 가지 못하고 그대로 지내시다 47년 고향으로 돌아가 부모님과 만났습니다. 2001년에 대구로 이사하시고, 대구에 있는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만나게 되어 대구지역 할머니들과 함께 활동해오셨습니다.



* 김외한 할머니(향년 85세)_ 6월 11일

1931년(주민등록상 34년) 경북 안동에서 태어나신 할머니는 43년에 공장에 취직하는 것으로 알고 끌려가 북해도에서 위안부 생활을 하셨습니다. 45년 해방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오기 위해 산에서 나무열매를 따 드시며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시고 겨우 고향 안동으로 돌아오셨습니다. 2012년부터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서 생활하셨습니다.



* 김연희 할머니(향년 84세)_ 6월 24일

할머니 증언에 의하면 할머니는 1932년에 대구에서 태어나셨고 5살 때 서울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한 국민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이던 44년 일본인 교장에 의해 차출되어 일본으로 끌려가셨습니다. 학교에서 2~3명씩 차출되었는



데 아버지께서 중국으로 피신하였다는 것이 불리하게 작용한 탓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일본의 시모노세키를 거쳐 도야마 현의 한 비행기 부속 공장에서 약 9개월 동안 일하시다가 아오모리 현 위안소에 끌려가 약 7개월 동안 위안부 생활을 하셨습니다. 해방이 되면서 배를 타고 겨우 서울로 돌아오셨고 위안소에 있던 기억의 후유증으로 정신병원에서 치료도 받았습니다. 이후 할머니는 가정부로 일하며 결혼도 하지 않고 사셨습니다.

* 최금선 할머니(향년 91세)_ 7월 5일

1925년 11월에 출생하신 최금선 할머니는 다른 할머니들에 비해 늦은 2000년을 훌쩍 넘어서야 일본군 위안부 피해 신고를 하셨습니다. 그만큼 해방 이후 긴 시간이 할머니에게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2002년, 수원에 살고 계시던 할머니를 처음으로 찾아뵈었을 때 할머니는 과거의 아픈 이야기를 여전히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2004년 1월, 집에서 쓰러지셨고 오래도록 입원생활을 하셨습니다.



* 박유년 할머니(향년 94세)_ 8월 8일

1922년에 경남에서 태어나신 할머니는 일본군 간호원으로 가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일본인을 따라 중국 광둥까지 가게 되었고 광둥과 싱가포르에서 위안부 생활을 하셨습니다. 해방을 맞아 고향으로 돌아왔으나 집에도 머물지 못한 채 타지를 떠돌며 힘들게 생활하셨습니다. 할머니는 경기도 파주에 사시다가 미국에 있는 아드님 집으로 이사를 가신 지 10여 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아프셔서 오래 병원에 계시다가 아드님 댁에서 마지막 2주를 보내신 뒤 하늘로 가셨습니다.

정대협 국제활동

전후 70년, 세계를 향한



전후 70년,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통해 평화를 앞당기는 활동은 어느 해보다 중요했고, 전쟁을 멈추라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호소는 더 큰 울림이 되어 세계에 울려 퍼졌다. 2015년 한 해 동안 펼쳐진 정대협의 국제연대 활동 속에 그 평화의 걸음들이 담겨 있다.

● **나비들의 평화기행** |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청년들의 열정이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뜨겁게 달구어졌다. 새해의 기운을 받아 1월 말부터 약 일주일 동안 희망나비 20여 명이 교토, 오사카, 나라, 도쿄 일대에서 살아 있는 역사를 배우는 활동을 펼친 데 이어 평화나비 20명이 7월 19일부터 5박 6일 동안 정대협과 함께 오키나와와 오사카 일대를 탐방하며 전쟁과 강제동원의 역사를 몸소 체험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일본의 평화활동가들은 물론 젊은 세대들과 교류하며 함께 평화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고, 8월 11일부터는 거꾸로 일본/재일 청년들이 한국을 찾아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세계 일본군'위안부' 기립일 캠페인에 함께하고 서울 곳곳에 남아 있는 근현대사의 기록을 찾아 나서면서 서로 간의 교류 속에서 평화의 싹을 틔웠다. 일정의 마지막에는 동아시아 대학생 국제토론회를 열고 앞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과 동아시아 평화 실현을 위해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행동해나갈 것을 다짐했다.

● **아베의 폭주를 막고 평화를 외치다** | 전후 70년을 맞아 일본정부가 전쟁범죄와 식민지 지배라는 폭력의 역사를 청산하고 평화의 길로 나서기를 염원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바람과는 달리 아베 총리는 오히려 평화를 위협하는 행보를 이어갔다. 4월 말 아베 총리의 미국 방문 중 이루어진 미 의회 연설과 8월 발표된 아베 담화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식민지 지배 등에 대한 반성과 사죄는 간데없이 말장난으로 끝나버리고 말았다. 바로 얼마 전인 9월 19일에는 기습적으로 일본의 안보법안을 통과시키며 끝내 전쟁을 향해 폭주했다. 정대협은 피해자들의 뜻을 담아 일본정부의 폭주를 막기 위한 연대활동을 펼쳐나갔고, 특히 4월에는 김복동 할머니가 직접 일본을 찾아 아베 총리의 방미를 앞둔 긴급 심포지엄에 참석해 일본의 연구자들, 연대 단체들과 함께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주제로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 이행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일본의 국회의원들과 도쿄 주재 각국 대사관들이 두루 참석한 이 심포지엄에서는 '국민기금'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12차 아시아연대회의에서 채택한 '일본정부를 향한 제언'에 대해 설명했다. 심포지엄 후에는 일본에서 처음으로 '나비기금' 집회가 열려 나비기금에 담긴 뜻과 활동내용을 일본 시민들에게 알리며 평화와 여성인권을 위해 연대해 나갈 것

을 제안했다. 또한 일본 주재 외신기자들 50여 명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개최해 김복동 할머니의 생생한 증언과 일본정부를 향한 피해자의 요구를 밝히며 아베 총리에게 역사를 직시할 것을 촉구했다.

● **13차 아시아연대회의** | 1992년 서울에서 처음 열린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가 올해로 13차를 맞이했다. 정대협 주최로 5월 21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아시아연대회의는 "전후 70년, 우리는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로 간다"라는 주제 아래 대만, 중국, 필리핀, 동티모르, 일본, 미국 등 8개국에서 200여 명의 활동가들과 연구자들 그리고 생존자들이 참석했고 네덜란드와 북측은 서면보고로 참여했다. 첫날 국회에서 열린 환영만찬을 시작으로 사흘 동안의 본회의를 통해 지난해 회의 이후 각국에서 펼쳐온 문제해결 활동과 피해자 지원활동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행동 계획을 이끌어냈다. 열린 논의와 토론 끝에 마지막 날 채택된 결의 및 행동계획에는 12차 아시아연대회의에서 채택한 일본정부를 향한 제언이 단 한 명의 피해자라도 더 살아 있을 때 피해자들의 권리와 요구에 부응하는 문제해결을 위해 제시된 가장 우선적이고 실현 가능한 해결안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 이행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일본정부가 취해야 할 조치들과 함께 피해

국 정부와 국제사회를 향한 요구 또한 함께 밝히고, 앞으로 아시아연대행동을 통해 전후 70년과 베이징 선언 20주년을 기한 국제적인 연대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피해자 지원 및 각국에서의 올바른 역사 교육을 위해 활동할 것을 결의했다. 아시아연대회의 폐회식 후 각국 대표단과 피해자들이 일본대사관을 찾아 결의문을 직접 전달했고, 평화비와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을 함께 둘러보며 연대와 교류의 시간을 나누었다.

● **유엔인권최고대표와 피해자들의 만남** | 올해도 유엔을 통해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제기하는 활동이 이어졌다. 먼저 지난 3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59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CSW) 기간 중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주관한 전시성폭력 관련 부대행사("전시 성폭력: 책임성, 성과 및 앞으로의 과제")에 윤미향 대표가 참석해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아시아의 전시 성폭력 사례로 보고했다. 이 행사에는 각국 여성활동가들이 참석해 파푸아뉴기니, 아랍 국가에서의 여성폭력에 대해 소개하고 게이 맥두걸 전 유엔특별보고관이 무력분쟁하 성폭력과 유엔인권 메커니즘에 대해 설명했다. 6월 24일에는 자이드 라아드 알 후세인 유엔인권최고대표가 직접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을 찾아서 김원옥, 김복동, 이용수 할머니를 만나 대화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호소



의 정의 회복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했다. 최고대표는 할머니들이야말로 세계 인권 대표이자 자신의 자문위원이라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고통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사과해야 과거사가 청산된다고 강조하며 세계 정부들의 역사 속 가해행위에 대한 책임 이행을 촉구했다. 그동안 정대협은 유엔 내 인권기구들에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경과를 지속적으로 보고해왔고 유엔인권사무소와도 대화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임기를 마친 나비 필레이 전 최고대표 역시 일본정부에 강력한 어조로 문제해결을 촉구했으며, 그녀는 바로 얼마 전인 10월 19일 한국 방문 길에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을 관람하고 다시 한 번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의 중요성과 할머니들의 활동에 대해 지지의사를 밝혔다.

● 일본의 친구 미국의 책임을 묻다 | 6월 25일부터 7월 7일까지 펼쳐진 미국 캠페인 기간 내내 김복동 할머니는 일본과 전쟁 동맹을 강화하고 있는 미국을 꾸짖었다. 클리블랜드와 워싱턴, 시카고를 순회하는 12박 13일 동안의 대장정은 미국의 대표적인 기독교단인 UCC 총회 워크숍에 초대받아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소개하고 미국 전역의 참석자들에게 서명을 받는 캠페인을 시작으로 미국정부 면담, 수요시위, 현지 단체와의 교류, 강연회 등의 일정으로 빠르게 채워졌다. 미국무부에서 글로벌 여성대사의 보좌진과 아시아 담당 실무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김복동 할머니는 일본정부가 지금까지 범죄를 부인하고 있는 것이 가장 화가 난다며 미국이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고 특히 일본이 과거 전쟁범죄를 청산하기는커녕 도리어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우방인 미국이 일본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옳은 길로 인도해줘야 진짜 친구가 아니겠냐고 돌직구(?)를 날렸다. 1185차 수요시위에 연대하며 워싱턴 주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수요시위에서도 김복동 할머니는 어느 때보다 목소리를 높이며 미국정부가 일본의 과거사 해결에 힘쓰고 전쟁준비를 막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외쳤다. 윤미향 대표 역시 2차 세계대전 종전 70년인 올해 ‘위안부’ 범죄의 처벌과 법적 책임 이행을 국제사회가 함께해야 한다고 호소했고 연대발언에 나선 필리핀 단체 활동가는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정부의 사죄는 제국주의 일본에 의해 희생된 여성들뿐 아니라 모든 군국주의 피해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언론의 뜨거운 관심 속에 열린 워싱턴 수요시위가 끝난 후에는 미주희망연대와 수요시

위 참가자들의 이름으로 낭독한 성명서와 아시아연대회의에서 채택된 일본정부를 향한 제언문, 워싱턴 정대위의 서한이 일본대사관에 직접 전달됐다. 조지 워싱턴대학에서의 강연회와 국제 엠네스티 면담 등 워싱턴 일정에 이어 마지막으로 찾은 시카고에서는 팔레스타인 여성으로서 이스라엘군에게 쫓겨나고 고문과 강간을 당하기도 한 라스미아 오데 씨와 김복동 할머니의 특별한 만남이 성사됐다. 두 여성의 생생한 증언과 대화가 오간 후 나비기금 300달러가 라스미아에게 전해지며 가슴 뭉클한 연대의 손잡음이 이루어졌다. 또한 시카고여성찾아라인의 주관으로 진행된 “평화를 위한 외침” 행사에서는 한인문화회관 행사장을 가득 메운 참석자들에게 김복동 할머니의 증언과 윤미향 대표의 강연을 통해 평화의 메시지가 전달됐다.

● 유럽 3개국에서 외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정의! | 미국 캠페인에 이어 김복동 할머니는 9월 8일부터 약 3주간의 유럽순회캠페인 길에 올랐다. 유럽의 대표적인 도시들인 오슬로, 런던, 베를린을 차례로 방문해 각국 정부 및 의회를 만나고 일본군‘위안부’ 역사와 피해자들의 호소를 전했다. 특히 처음 발을 내딛은 노르웨이에서는 평화를 상징하는 곳을 두루 방문했다. 오슬로대학교에서 박노자 교수의 도움으로 세미나를 열었고 노벨평화

센터와 오슬로평화연구소를 찾아 아직 노르웨이에 익히 알려지지 않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설명하고 활동가와 학자들의 관심을 이끌어냈다. 노르웨이 외교부 담당자는 면담 내내 진지한 자세로 김복동 할머니의 증언을 들으며 여러 역사적 정보에 대해 질의하는 등 큰 관심을 나타냈다. 전쟁과 여성이라는 주제로 특별기획 기사를 준비하고 있던 노르웨이의 대표적 페미니스트 잡지도 김복동 할머니를 만나 인터뷰했다. 런던의 곳은 날씨와 교통 체증을 뚫고 이루어진 영국 외교부 면담, 국제 엠네스티 본부와 연대행사, 골드스미스 대학 및 재영한국문화원 세미나, 녹색당 의원이자 유럽연합 의원인 진 램버트와의 만남 등 영국에서의 일정도 전시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동 행동과 계획 등을 결의하는 시간으로 알차게 채워졌다. 특히 정대협은 전시 성폭력 근절을 위한 G8 선언을 이끌고 있는 영국정부를 만난 자리에서 전시 성폭력 예방 대사에 보내는 서한을 전달했고 영국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계속 대화해 나갈 뜻을 밝혔다. 2차 세계대전의 상흔을 도시 곳곳에 새겨 넣은 베를린에서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고통-일본정부의 책임을 묻는다>라는 제목으로 열린 국제 콘퍼런스 장소를 가득 메운 사람들의 열기를 통해 어느 곳에서보다 큰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독일코리아협회가 준비한 이 회의에는 독일 연구자들과 일본 역사학자 하야시 교수 등이 함께 참여해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조직적인 성노예 범죄임을 밝혔고 독일군의 성폭력 범죄 역시 더 규명되고 다루어져야 한다는 과제를 확인했다. 특히 기억, 책임, 미래재단의 연구자 우타 게틀란트는 나치범죄의 청산 과정에서 국제적인 압력과 연대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경험을 설명하고 나서, 독일군의 성폭력 범죄를 밝혀나가는 데 있어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한국의 운동 사례로부터 배울 것이 많다고 강조했다. 독일 베를린 일본대사관 앞에서는 10여 개의 현지 단체들이 연명하고 참석한 가운데 수요시위를 열었고 전쟁을 기억하는 상징적인 장소인 카이저 빌헬름 교회까지 행진을 이어갔다. 베를린에서의 마지막 날에는 독일국회를 찾아 독-일친선의원연맹 및 인권위원회 소속 여성의원들에게 피해자들의 호소를 전하고 독일국회의 협력을 요청했다. 의원들은 적극적인 자세로 대화를 이어나가며 일본정부의 우경화 행보를 비판했고 일본정부에 계속해서 문제해결을 요구해나간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복동 할머니가 의원들의 가슴에 나비 배지를 달아주면서 평화의 메시지를 전한 3주 동안의 유럽 캠페인이 막을 내렸다.



수요시위 경과보고

1월 7일 1160차 수요시위: 23주년



2015년 새해 첫 수요시위는 23살 생일을 맞아 할머니와 참가자들이 다 함께 "2015년, 마침내 해방을!" 외치며 각오를 다졌다.

2월 18일 1166차 수요시위: 설날 세배



설날 명절을 앞두고 수요시위를 찾은 참가자들이 김복동, 김원옥 할머니께 세배를 드리고 있다.

3월 4일 1168차 수요시위: 107주년 세계여성의 날



참가자들은 "월드 서먼 미국무부 차관은 과거사 망언 즉각 사과하라"고 구호를 외치며 규탄했고, 주관단체는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할머니께 장미꽃과 떡케이크를 전했다.

3월 25일 1171차 수요시위: 할머니 사랑해요!



평화나비가 TBS교통방송 희망광고 촬영을 위해 김복동 할머니와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평화나비 희망광고는 서울시내 지하철과 버스에서 방영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알렸다.

4월 8일 1173차 수요시위: 탄 아주머니와 런 아저씨



베트남전쟁 한국군 민간인 학살 피해자들이 평화를 찾아왔다. 베트남에서 온 탄 아주머니와 런 아저씨는 같은 아픔을 겪은 전쟁의 피해자로서 할머니들에게 따뜻한 응원을 전했다.

1200번의 평화를 향한 외침이 여기에!

매주 수요일 아침,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로 나설 재비를 서두릅니다. 정대협 활동가들은 스피커와 현수막, 참가자들이 앉을 깔개와 피켓, 나비기금 후원물품과 모금함을 챙겨 희망승합차에 가득 싣고, 할머니들은 씬터에서 겨울에는 장갑과 털모자를, 여름에는 양산과 선글라스를 챙기십니다.

오늘은 수요시위가 있는 날. 매주 수요일 정오마다 24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렇게 평화로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수요시위에 서는 이유는 단 하나, 일본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 할머니들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고, 더 이상 여성폭력과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앞당기기 위함입니다.

천이백 번의 외침이 계속되는 세월 동안 할머니들은 참 많이 변화했습니다. 피해자를 넘어 인권운동가로, 평화운동가로, 수요시위를 찾은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다시는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없어야 한다며 할매나비가 앞장설 테니 여러분도 나비가 되어 평화와 인권이 보장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광복 70주년인 올해에는 반드시 일본정부가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이행하고, 할머니들에게 '마침내 해방'이 찾아오기를 바랐건만, 빛 좋은 개살구마냥 말장난으로 끝나버린 아베담화에 우리의 염원과 기대는 실망으로 돌아 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1200차 수요시위까지 달려왔고 앞으로도 굳건히 연대하며 함께 싸워나갈 것입니다.

좌절하지 않고, 마침내 해방을 외치는 사람들,
그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곳

2015년에도 참 많은 분들이 수요시위를 찾아주셨고, 주관단체로, 자유발언으로, 노래와 율동공연으로, 할머니께 드리는 편지로, 나비기금 기부로, 수요시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이쿱생협, 한국여성단체연합,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희망나비, 평화나비네트워크, 한국노총, 한살림 서울, 청년나비, 극단 고래, 일본 9조련 등은 매년 꾸준히 수요시위를 주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광영여고 대흥나비, 수원 평화나비, 이화나비, 춘천 평화나비 등 나비모임들과 노동당, 정의당, 부천시민연합, 경기3.8준비모임, 수원지역목회자연대 등 각계각층의 단체들이 수요시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시위에 빠지지 않고 참가하는 사회적기업 마리몬드, 극단 고래, 성가소비녀회, 한국순교복자수녀회 희망나비, 평화나비네트워크 등과 채해진, 김선민, 신현규, 김진세, 박성경, 김영경 정대협 자원활동가들도 변함없이 수요시위를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에는 건강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시지만, 항상 맨 앞줄에서 열정적으로 구호를 외치는 김복동, 김원옥 할머니께 서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1월 7일, 1160차 수요시위는 2015년 새해 첫 수요시위로, 23주년을 맞아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올해에는 마침내 해방을 가져올 수 있도록 각오를 다지는 자리로 꾸몄습니다.

3월 25일, 1171차 수요시위는 전국 24개 대학 캠퍼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평화나비 네트워크와 함께 3월 개강을 맞아 서울, 경기, 부산, 울산, 김

해, 제주까지 전국각지의 대학에서 학생들이 직접 주관하는 수요시위의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8월 12일, 1191차 수요시위는 제3차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맞아 세계연대집회로 8개국, 25개 도시 연대행동으로 치러졌습니다. 참가자들은 "2015년, 마침내 해방을!"이라 적힌 대형 현수막을 머리 위로 펼치며 할머니들의 진정한 해방이 하루빨리 다가오기를 촉구했습니다.

10월 14일, 1200차 수요시위를 맞아 할머니들의 주관으로, 이용수 할머니가 사죄를 보시고 김복동 할머니가 인사말씀을 하시고, 참가자들의 피켓 속 사진으로 다른 할머니들도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24년 동안 계속되어 온 인권과 정의를 향한 투쟁의 역사를 되짚어보며 일본 정부가 사죄와 배상을 이행하는 그날이 하루빨리 다가오기를 염원했습니다.

매주 수요시위가 끝나면 참가단체와 자유발언, 경과보고, 성명서, 나비기금 모금 등 그날 있었던 일들을 꼼꼼히 기록합니다. 수요시위 참가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염원이 모여 평화와 인권회복을 향한 커다란 외침을 만들고, 그 외침이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대협 활동가들은 이번 주도 수요시위를 준비합니다. 곧 다가올 해방의 역사가 멀지 않았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책임감으로, 때로는 설렘으로, 수요시위 찾아오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듭니다. 그 현장에 끝까지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4월 29일 1176차 수요시위: 우배 입은 할머니들



빗속에서도 많은 참가자와 취재진이 모인 가운데 아베 일본 총리의 미의회 연설을 앞두고 성명발표와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5월 20일 1179차 수요시위: 9조련 주관



일본 시민단체 '일본헌법 9조-세계로 미래로 연락회'가 8번째로 수요시위를 주관해 평화헌법 수호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메시지를 담은 긴 그림판을 들고 할머니들을 응원하고 있다.

6월 17일 1183차 수요시위: 할머니를 추모하며



故 김외한, 김달선 할머니에 대한 추모로 수요시위를 시작했다. 올해만 8분의 할머니가 돌아가셨고, 이제 남은 생존자는 47분뿐이다.

수요시위 소감 한마디

자원활동가 1. 신현규(1999년생 / 17세)



수요시위와 저의 첫 만남은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 조금이라도 고민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길 바라신 부모님의 권유로 시작되었습니다. 2014년 3월 12일 열렸던 제1117차 수요시위가 제가 참석한 첫 집회였는데, 그 자리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직접 뵙고 제 자신을 되돌아볼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와 역사에 대해 제가 얼마나 무관심하고 무책임하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돕는 것이 맞지 않나', '앞으로 꾸준히 나오자'라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두 달 동안은 역사책도 다시 읽어보고, 매주 나오는 성명서나 관련 뉴스를 꼼꼼히 살펴보면서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가 스피커 설치나 짐 나르기 등 간단한 일들을 돕기 시작했는데, 매주 그렇게 도와드리다 보니 웬지 뿌듯한 느낌이 들었고 수요시위에 대해서도 책임감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나비기금 마련을 위한 기념품 판매 가판대에 서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으면서 많은 것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나이도 어리고 아는 것도 별로 없는 제가 그런 자리에서 다른 누군가를 마주 대한다는 것이 좀 두려웠지만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가판대에 서보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 후로 그 자리에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 후로 1년 5개월, 저는 여전히 가판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동안 사고도 치고 실수도 많이 했지만 주변 분들의 너그러운 이해와 도움 속에 계속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그사이 수요시위가 저에게 의미하는 바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역사에 대한 호기심과 일본에 대한 분노로부터 자극받은 혼자만의 의무감과 어정쩡한 사명감으로 시작했던 봉사활동이 이제는 제가 세상을 보고 배우는 중요한 소통과 배움의 창이 된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어 우리 할머니들이 명예와 인권을 되찾게 되는 그날까지 자원 활동을 앞으로도 계속 해나갈 생각입니다.

자원활동가 2. 김진세(1996년생 / 20세)



수요시위에 자원활동으로 참여한 지도 어느덧 1년이 흘렀습니다. 작년 9월 17일 수요일에 처음으로 참여한 이후 지금도 꾸준히 나가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에 꾸준히 참여하면서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UN, 미국, EU, 호주 의회 등 국제사회는 일본정부에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진실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아질 것입니다. 이는 전 세계에 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인권운동가' 할머니들과 많은 사람들 덕분에라고 생각합니다. 가끔은 '우리가 계속 이렇게 외쳐도 저들이 우리의 말을 들을까, 과연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나가서 외치는 이유는 그리 거창하지 않습니다. 일본정부가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함으로써 과거 전쟁범죄를 인정하고, 전범국으로서의 책임을 모두 이행하는 것, 미래 세대들에게 올바른 역사교육을 함으로써 다시는 비극적인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지만 희망은 놓지 않을 것이며,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

된 지 70년이 되었지만, 할머니들에게 진정한 해방이 오진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루빨리 일본정부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공식 사죄를 하고 법적 배상을 하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정부도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요청합니다. 앞으로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수요시위는 계속 나갈 것이며,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저는 작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할머니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관단체 1. 춘천 평화나비



춘천 평화나비는 2015년 3월 25일, 회원 25명이 참여해 1171차 정기 수요시위를 주관했는데, 아직까지도 많은 회원들에게 평화나비를 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며, 전쟁 없는 평화세상이 오지 않는 이상 완전한 해결은 없을 것입니다. 전쟁으로 인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 중에서도 지배층이 아닌 피지배층입니다. 그 때문에 할머니들께서 아흔 가까운 연세이시에도 싸우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춘천 평화나비는 올해 총 네 번의 수요시위를 찾았습니다. 춘천 평화나비 콘서트 기획단이 간 1164차, 주관한 1171차, 할머니들에게 춘천에서 희망의 날개가 되겠다고 한 1175차, 춘천에서 진행한 세계 1억인 서명운동 서명지를 전달한 1185차 수요시위입니다. 수요시위를 참가할 때마다 정말

이 문제를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할머니와 정대협을 중심으로 여러 단체들이 힘을 모아 정기 수요시위를 이어나가고 있으며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의 해결을 바라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우리는 춘천 지역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선봉이 되어야 한다고 느낍니다. 할머니와 같은 멋진 인권활동가가 되어 우리의 인권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춘천 평화나비는 앞으로도 계속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 있을 것입니다.

주관단체 2. 정의당 여성위원회



정의당 여성위원회의 이름으로 처음 수요시위를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무려 1196차 수요시위, 할머니들이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외친 지도 어언 24년이 되었습니다. 생떼를 쓰는 것도, 무리한 것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24년도 아닙니다. "일본군'위안부' 범죄를 인정하라, 진상을 규명하라,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라, 그리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이러한 요구들은 그것이 어떤 사건이든, 잘못된 일을 저지른 후에는 지극히 당연하게 거치는 과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들의 요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묵살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작은 힘이나마 보태서 할머니들의 외로운 길에 꾸준히 함께하는 동지가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한 번에 깰 수는 없으나, 계속 계란을 바위에 깨뜨리다보면 바위는 더 이상 처음의 바위가 아니게 됩니다. 언제나 수요시위를 여는 노래 '바위처럼' 할머니들의 울은 길에 늘 함께하겠습니다.

6월 24일 1184차 수요시위: 김복동 할머니



이날 수요시위에서 김복동 할머니는 분쟁지역 아동을 지원하고 평화활동가들을 양성하기 위한 장학금으로 전 재산 5천만 원을 나비기금에 기부했다.

6월 30일 1185차 수요시위: 오키나와 공연



수요시위 참가자들은 할머니를 응원하기 위해 멋진 공연을 준비해온다.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참가자들이 오키나와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8월 12일 1191차 수요시위: 세계연대집회



제3차 세계 일본군'위안부' 기림일 맞이 세계연대집회가 8개국, 25개 도시 공동 연대행동으로 치러졌다. 참가자들은 할머니들의 진정한 해방을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10월 14일 1200차 수요시위: 할머니들 주관



이용수 할머니가 사회를, 김복동 할머니가 인사말을 하고, 피켓 속 사진으로나마 다른 할머니들도 함께 자리했다. 24년간 계속되어온 투쟁의 역사를 돌아보며, 하루속히 일본정부가 사죄와 배상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제3차 세계 일본군'위안부' 기림일

정대협은 광복 70년인 올해에도 “아직도 우리는 해방되지 않았다”며 일본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외치시는 할머니들의 “진정한 해방”을 위해, 오직 시민들의 힘으로 제3차 세계 일본군'위안부' 기림일 행사를 천여 명이 넘는 시민들과 함께 치러냈습니다.

▶ 세계연대집회

8월 12일 낮 12시,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에서 열린 <제3차 세계 일본군'위안부' 기림일 세계연대집회 및 제1191차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는 세계 8개 나라, 25개 도시에서 연대행동으로 참여했고, 김복동, 김원옥,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연대단체, 학생, 시민 등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평화와 정의를 향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갑니다. 해방으로! 우리는 전쟁과 폭력의 역사를 닫고, 평화와 정의의 물결을 타고자 합니다. 전쟁 속에서 성폭력당하고 고통받는 여성들과 아이들에게 우리의 연대의 손을 뻗치고자 합니다!”라고 힘차게 외치는 정대협 윤미향, 한국염, 김선실 공동대표의 개회선언으로 문을 열고,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와 이희자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공동대표, 마오 지양 토론토 알파 활동가의 연대발언이 이어졌습니다. 꽃다지와 효동초등학교 학생들의 공연은 한마음으로 우리의 의지를 다지게 해주었고, 최광기 정대협 홍보대사의 사회는 참가자들의 마음에 평화를 안겨주었습니다. 평화나비, 희망나비, 청년나비 대표 3인의 성명서 낭독에 이어 참가자들은 어느 때보다 힘찬 목소리로 구호를 외치고, 다 함께 “나비, 해방으로 날자! 2015 마침내 해방!”이라 쓰인 대형 걸개를 머리 위로 펼치며 ‘진정한 해방’을 향한 모두의 희망을 확인했습니다.



▶ 나비행진

세계연대집회를 마치고 희망나비, 평화나비 대학생들은 평화로에서 시작해 광화문 세월호 광장을 지나 서울시청 앞 광장까지 제3차 세계 일본군'위안부' 기림일 맞이 <나비행진>을 진행했습니다. 행진에 참가한 400여 명의 학생들은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로 할머니들께 진정한 해방을 앞당기자! 청년들이 앞장서서 한반도를 평화의 땅으로, 전쟁 없는 해방세상 만들자!”며 소리 높여 구호를 외치면서 세월호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참가자들은 나비행진 소식에 선뜻 발언에 나서주신 세월호 희생자 다운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일본군'위안부' 할머니들과 마찬가지로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계속되고 있는 고통에 가슴 아파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화나비, 희망나비의 대표 발언에 이어 ‘진실은 침묵하지 않는다’와 ‘바위처럼’ 율동으로 연대의 마음을 나눴습니다. 서울광장으로 힘찬 발걸음을 옮기며 세계 일본군'위안부' 기림일 행사를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행진은 길에서 만난 시민들의 격려와 응원에 더 큰 함성과 구호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서울시 평화콘서트

나비행진에 이어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는 김원옥 할머니가 함께 한 평화콘서트 <나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공연장 안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원옥 할머니와 박원순 서울시장의 나란히 무대로 나와 굴렁쇠 아이들과 함께 ‘고향의 봄’ 노래를 불렀고, 김원옥 할머니와 정대협 초대 실행위원인 김혜원 선생님이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해 걸어온 길을 높이 평가받아 유공자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세대를 대표하는 시민들과 함께 커다란 나비에 촛불을 꽂아 불을 밝히는 평화 퍼포먼스로 민과 관이 함께 평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공감하는 자리로 마무리했습니다.



“나비, 해방으로 날자~!”

▶ 촛불문화제

저녁 7시, 서울광장에서 진행된 제3차 세계 일본군'위안부' 기림일 맞이 촛불문화제 <나비, 해방으로 날자>는 런 갯마당의 사전공연으로 시작해, 백창우와 굴렁쇠 아이들의 공연, 주홍 작가의 샌드아트, 재즈가수 말로의 노래, 극단 고래의 평화의 대합창 등 다채로운 공연들이 펼쳐졌습니다. 참가자들은 한 손에는 “나비, 해방으로 날자! 마침내 해방!”이라고 적힌 손 피켓을, 한 손에는 촛불을 들고 올리는 반드시 일본정부의 사죄를 받아내고 해방을 맞이하자는 모두의 바람을 담아 더욱 뜨겁게 연대했습니다. 권해효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홍보대사의 사회로 민가힘 엄경희 부회장, 햇살사회복지회 기지촌 할머니, 이주여성인권연대 등의 연대발언과 한일제일나비네트워크한국방문단 미시나 타구토, 팔레스타인 평화연대 덩야핑의 평화발언이 이어졌습니다. 평화나비, 희망나비 등의 공연이 촛불문화제의 분위기를 고조시켰고, “엄마, 나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라고 시작되는 길원옥 할머니의 염원이 담긴 영상을 보며 참가자들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여성, 법률가, 기업인, 노동자, 학생, 교사, 종교인으로 구성된 각계 대표 7인이 평화선언을 낭독하였습니다. 그리고 런 갯마당과 성문밖학교의 신명나는 풍물공연으로 참가자 모두가 하나 되는 평화의 대동한마당을 만들고 제3차 세계 일본군'위안부' 기림일의 의미를 되새기며 촛불문화제의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제3차 세계 일본군'위안부' 기림일 맞이 공동행동은 국내에서는 광주, 원주, 청주, 전주 지역의 평화비 제막식과 수원, 통영, 대전, 창원 지역의 기림일 맞이 문화제, 그리고 부산, 충청, 진주, 대구 평화나비의 세계연대집회 동시 개최와 전국여성연대 기림일 집회개최 등 전국적으로 나비들의 연대행동이 이어졌습니다. 국외에서는 일본 홋카이도, 도쿄, 나고야, 간사이, 히로시마, 북큐슈, 대만 타이베이, 캐나다 토론토, 필리핀 마닐라, 미국 시카고, 독일 베를린, 중국 상하이 등 세계 각지에서 세계연대집회 개최 및 촛불시위, 전시회, 거리캠페인과 같은 기림일 맞이 공동실천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우리의 의지와 연대의 힘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추모식 <할머니들의 70년, 잊지 않습니다>

8월 14일 세계 일본군'위안부' 기림일에는 돌아가신 피해 할머니들을 기리는 추모식을 했습니다. 장소는 김학순, 장점돌, 황금주, 손판임, 이효순 할머니 등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 39분이 잠들어 계신 망향의 동산이었습니다. 망향의 동산이 천안에 있어서 서울과 충남지역 활동가와 시민들이 모여 조촐한 추모식을 진행했습니다. 서울에서는 희망나비, 청년나비, 마리몬드, 극단 고래, 휴머니지먼트(현수막 걸개와 음향시설 제공)와 정대협 활동가들이 참석하였고, 충남지역에서는 평화비를 건립했거나 건립을 진행하고 있는 평화나비대전행동, 세종평화의 소녀상 건립 시민추진위원회, 천안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 당진 평화비 건립위원회에서 참석하였습니다. 묵념과 촛불 점화 후 극단 고래 이해성 대표의 추모시, 세종 평화의 소녀상 추진위의 홍보우님과 천안 평화비 건립위의 장명진님의 추모사, 극단 고래 배우 배우리님의 추모노래, 극단 미래 배우 유정숙님의 추모공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들에 대한 헌화를 한 뒤 망향의 동산에 잠들어 계신 39분 할머니를 하나하나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방 70년 기림일을 맞이한 우리의 다짐 시간을 가졌습니다. 할머니들이 편안히 잠드실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야기하고, 할머니들에게 진정한 해방이 올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는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쟁 없는 평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각자 자신이 있는 곳에서 노력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전국 곳곳에 부는 평화비 바람~

2015년 3월 1일, 대전 평화의 소녀상

2014년 8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일본재무장 반대, 한반도의 평화실현을 위하여 대전 시민사회단체, 노동, 종교, 정당으로 구성된 '대전 평화의 소녀상 건립 시민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 대전광역시와 함께 민·관 공동협력사업으로 '대전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기자회견, 기관 업무협조 요청, 평화기원문화제 개최, 회원단체별 추진기금 약정 및 캠페인, 대시민 홍보 등의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1일, 500여 명의 대전시민들과 함께 대전광역시청 북문 맞은편 보라매공원에서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평화의 소녀상 주변에는 대전시민추진위원 2,377명과 참여단체 196 개의 명단이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사리 손부터 그간의 세월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주름진 손까지, 정성어린 마음들을 역사에 남기기 위해 기록한 것입니다.

이제는 한 분 한 분 우리 곁을 떠나고 계신 할머니들을 기억하고, 여전히 길 위에 너무도 당당히 서 계신 할머니들에게 감사와 연대의 마음과 행동



으로 함께하겠다는 약속의 기록입니다.



"우리는 일제강점기에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피맺힌 고통을 겪어야만 했던 이 땅 소녀들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며 인권이 존중되고 평화가 실현되는 사회를 바라는 대전시민의 뜻을 모아 이 비를 세웁니다." -대전 평화의 소녀상 비문-

대전 평화의 소녀상 건립 시민추진위원회 오민성

2015년 3월 1일, 울산 평화의 소녀상

2015년 3월 1일, 광복 70주년 삼일절을 맞아 울산대공원 앞에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되었습니다. 울산시민들의 작지만 큰 마음들이 하나둘 모여가는 과정은 너무나도 큰 감동이었습니다.

특히 울산의 소녀상은 노동자들이 가장 큰 힘을 모아주었습니다. 현장에서, 그리고 노동조합에서 소녀상건립기금 마련을 위한 모금과 기금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노동자가 세운 평화의 소녀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울산시에서 외교상의 문제, 장소선정의 문제 등 부정적 의견을 보내와 소녀상 건립이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곳곳에서 소녀상을 세우라는 1인시위가 벌어지고 각계각층의 기자회견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역사를 바로 세우고 지켜가고자 하는 시민들의 힘이 평화의 소녀상을 세워냈습니다. 3월 1일 제막식은 그야말로 감동의 현장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특히 제막식에 함께해준 이용수 할머니의 이야기는 울산시민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 이후 우리는 평화의 소녀상 지킴이 활동과 더불어 울산토요집회를 개



최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끊임없는 재무장시도, 왜곡되는 역사,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 울산시민들과 함께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모여 우리가 만들어가는 새로운 역사, 우리들의 손으로 만드는 평화의 미래를 만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시작하고 나니 더욱 희망이 보입니다. 울산에서도 할머니들의 싸움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울산 평화의 소녀상 건립운동본부 박인경

2015년 8월 13일, 전주 평화의 소녀상

전주 평화의 소녀상은 한옥마을 부근에 있는 국보 308호 풍남문을 배경으로 '기억의 광장'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광장에는 세월호 희생자를 기억하기 위한 천막농성장과 1주기를 맞아 시민들이 심은 '세월호 나무'가 있습니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우리 역사가 시민들의 마음을 두드리는 그곳에 주먹을 꼭 쥔 소녀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사단법인 전북겨레하나는 2015년 2월 10일 정기총회에서 광복 70주년을 맞아 평화의 소녀상 건립 시민운동을 벌이기로 하고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집담회를 연 후 시민추진위원회를 결성해 모금운동을 펼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일본의 재무장과 동아시아 평화를 주제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함께하는 평화콘서트, 강연회 등 행사를 열었습니다. 건립 운동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은 매우 뜨거웠습니다. 지역의 단체, 기관, 전주시장과 공무원들, 전라북도교육청, 노동조합, 교회, 사찰, 생협, 의료인 단체, 시민단체, 정당, 지역의 학교의 교직원들과 학생들, SNS로 소식을 들은 시민들,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뜨거운 마음들이 모여져 당초



목표를 두 배 이상 넘어선 1억3천여만 원의 기금이 모아졌습니다. 8월 13일 오전 11시 열린 제막식에서 김복동 할머니는 "평화의 소녀상은 역사의 공부방"이라는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역사를 기억하고 미래의 희망을 꿈꾸는 시민들이 모이는 곳! 시민의 외침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곳! 전주 평화의 소녀상은 그곳 기억의 광장에서 시민들과 늘 함께할 것입니다. 전주 평화의 소녀상 건립시민추진위원회 김성희



2015년 평화비가 전국 곳곳에서 내렸습니다.

재미있고 감동적인 평화비 건립 이야기를 각 지역 추진위원회에서 보내주셨습니다.

지면상 많은 이야기를 모두 담지 못한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2015년 8월 15일, 원주 평화의 소녀상

2015년 2월 원주시민연대 정기총회에서 역사적인 광복 70돌, 분단 70주년을 맞아 과거를 고통스럽게 되돌아보게 되었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인권을 지키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원주평화의 소녀상 건립 시민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원주문화원, 광복회, 615강원본부, 여성계, 문화예술계, 노동단체, 5대종단을 중심으로 한 준비위원회는 이념과 세대, 종교를 뛰어넘어 일본의 과거사 문제해결을 위해 원주 평화의 소녀상 건립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결성하였고 시민모금운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부터 매주 수요일 원주농협 앞에서 시민모금운동과 일본의 사죄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3개월간 11차례 시민모금운동과 31번의 시민 캠페인, 60여 차례의 기관, 단체설명회를 통해 총 6천151만 원의 성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건립지 선정을 위한 시민참여여론조사, 원주시의회 간담회, 참가단체 대표자회의를 진행하여 강원도에서는 처음으로 원주시청공원에 역사적인 원주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되었고 8월 15일 광복절에 제막식을 했습니다. 원주 평화의 소녀상은 원주시 공공조형물 2호로 선정되었고, 원주시의



회는 일본의 사죄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이렇게 원주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이 성대하게 치러진 것은 인권을 소중히 여기고 자유와 평화를 바라는 원주시민들의 한결같은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이곳은 광복과 동시에 찾아온 분단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역사의 현장, 미완의 광복을 진정한 광복으로 만들기 위한 시민교육의 산실이 될 것입니다.

원주 평화의 소녀상 건립 범시민추진위원회

2015년 10월 3일, 세종 평화의 소녀상

세종시는 2015년 1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윤미향 대표의 강연회를 개최하는 것을 시작으로, 20여 개의 시민단체들이 모여 '세종 평화의 소녀상 건립 시민추진위원회 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습니다. 이후 준비위원회는 11차례의 총회준비위원회회의를 진행하고 8월19일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사무처를 중심으로 제막식 준비를 진행하였고, 단 10개월 만인 10월 3일에 제막식을 치렀습니다.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자발적 동참으로 1,600여 명의 시민추진위원과 각 민간단체와 관공서, 기업체 등 85개의 단체가 함께하였습니다. '세종 평화의 소녀상'의 특징은 소녀상의 뒤쪽에 배경이 될 부조를 제작하여 기념판화를 새겨 넣고, 뒷면에 시민추진위원과 참여단체의 이름을 새겨 역사에 남기도록 진행한 것입니다. 세종시민은



앞으로도 일본의 진심어린 사죄를 받아낼 때까지 할머니들과 함께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세종 평화의 소녀상 건립 시민추진위원회 송민영



2015년 10월 30일, 서산 평화의 소녀상

서산 평화비 활동 보고는 평화비 제막식 때 중학교 3학년 학생이 할머니께 드린 글로 대신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산여자중학교 권정은입니다. 제가 처음 일본군'위안부'를 알게 된 때는 초등학교 5학년 때입니다. 당시 일제강점기에 관해 배우면서 '위안부'라는 단어를 처음 보게 되어,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꽃 할머니>라는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13세에 위안부로 끌려가신 심달연 할머니의 증언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책으로, 당시 많은 소녀들이 일본군들에 의해 끌려가 인권을 유린당했다는 사실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중국, 미얀마, 싱가포르 등 여러 나라에 소녀들을 끌고 이동하며 잔혹한 짓을 하여, 끌려간 분들이 타국에서 쓸쓸히 생을 마치기도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 나이 또래에 잡혀가신 할머니의 증언에 대해 읽으며 지금 세상에는 이러한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였고 자신의 잘못도 아닌데 일생을 다 잃어버리게 된 할머니가 너무나도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픈 역사를 잊지 않고 평화와 인권을 지킬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서산시에서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기 위한 모금을 한다는 기사를 보고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불편



한 진실을 알리는 평화의 소녀상이 시민들이 자주 오가는 곳에 건립되어 역사를 잊지 않는 민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사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숨기려 하는 일본정부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공식 사죄가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에 세워지는 평화의 소녀상들을 통해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만행을 바로 알고,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또한 평화의 소녀상을 단순히 세우는 것만이 아니라 잘 보존하여 타향에서, 타국에서 돌아가신 억울한 영령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산 평화의 소녀상 건립 참여 서산여자중학교 권정은



2015년 11월 3일, 고등학생이 세우는 평화비

작년 8월 13일 수요시위 참가를 계기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응원하고 하루빨리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고등학생의 손으로 직접 소녀상을 세우기로 하였습니다.

건립기금을 마련하고 저희의 활동을 알리기 위하여 페이스북 페이지 '고등학생이 만드는 평화의 소녀상' 관리 및 운영, 나비배지 판매, 학내 수요시위 게시판 운영, 신문기사 제보, 온라인 수요시위 기획 및 운영, 수요시위 참여, 대학생 평화나비와 함께하는 거리홍보 및 모금활동, 이화 서포터즈, 건립부지 물색 작업, 작가님과의 만남, 세계 1억인 서명운동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 또한 더 많은 학생들의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편지를 써서 다른 학교들의 참여를 제안한 결과 53개 학교(고양중산고, 관악고, 광영고, 광영여고, 덕수고, 대광고, 대신고, 동작고, 동해삼육고, 명덕외국어고, 미림여고, 보성여고, 서서울생활과학고, 서울금천고,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 서울신도고, 서울영일고, 서울오산고, 서울외국어고, 서울우신고, 서울중앙여자고, 성남효성고, 성동글로벌경영고, 세현고, 수도권전기공업고, 수락고, 송실고, 신정여자상업고, 여의도고, 영동일고, 영동포고, 영신간호비즈니스고, 예일여자고, 용산고, 용화여고, 월계고, 이화여대병설미디어고, 이화여고, 이화여자대학교사범대학부속이화금란고, 이화여자외국어고, 정발고, 중경고, 중앙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 중화고, 청원여자고, 충암고, 충주



고, 풍문여자고, 한강미디어고, 한국삼육고, 혜성여자고, 화수고, 한일고)가 평화비 건립을 함께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3일 정동에서 제막식을 했습니다. 평화비를 세우며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럴 때마다 더 많은 분들의 응원과 관심을 받았습니다.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감사함을 더 느끼게 되었고, 이 따뜻한 마음을 할머니들께 전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만 해도 목이 메는 아픈 상처를 받으신 만큼 우리 학생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기억하고 함께 날갯짓해서 문제해결을 앞당기고 할머니들의 상처를 조금이라도 어루만져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평화비를 세우는 것으로 저희의 활동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고등학생으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을,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는 날까지 계속할 것입니다.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함께하는 대한민국 고등학생 권영서

2015년 11월 7일, 의정부 평화의 소녀상

의정부 평화비 건립운동의 주역은 청소년들입니다. "시민 성금만으로 가능할 수 있을까요?, 만약 중단이 되면 어찌되는 건가요?" 거리에서 시민들에게 홍보물을 나누어드리며 평화비 건립의 의미를 설명하고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성금 모금을 하면서도, 불안했던 모양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할 수 있을 거야!"라고 했습니다.

역사교사모임에서는 '혁명적 낙관주의'라는 말로 서로 격려했습니다.

각 학교에서 일본군 '위안부' 공동수업을 하고, 학생회 아이들과, 동료 교사들과 함께 평화비 건립운동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대하며 역사를 몸으로 배우는 실천을 조직했습니다.

의정부여고, 경기북과학교, 의정부공고, 천보중학교, 의정부중학교, 의정부고등학교, 경민재단에서 갖가지 방법으로 모금과 홍보 활동에 적극 참여했고 양주 지역 덕정고, 덕현고, 덕계고 등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아이들의 '코 묻은 돈'이 거의 전체 모금액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소식을 들으니 그동안 "평화비가 지역의 급한 사안이야? 정말 되겠어?" 했던 어른들이 힘을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의정부의 평화비 건립운동은 학교에서의 평화인권교육, 지역사회와 학교



가 연계하여 진행한 청소년들의 자치와 연대, 의정부를 평화와 통일의 도시로 거듭나게 하자는 지역 어른들의 헌신이 함께 만들어진 것입니다.

11월 3일은 학생의 날, 우리 의정부의 청소년들과 시민들은 그 주 토요일 11월 7일에 평화비를 찾고 소녀 옆 빈자리에 함께 앉아 평화 인권을 다짐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에 세워지는 평화비가 학교 밖 역사교육의 현장이며 우리 지역 청소년들의 자부심이 될 것입니다.

의정부평화비건립 추진위원회 우현주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많은 눈물로 씨를 뿌려온
25년 정대협 활동에
응원합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자이온(ZION)교회

정대협 결성 25주년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일본후원회는 앞으로도 계속 박물관 활동과 나비기금을 일본에서 널리 알리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일본후원회

전시성폭력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나비기금

2012년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는 전시 성폭력 피해 여성들을 돕고 싶다는 김복동, 김원옥 할머니의 뜻을 담아 태어난 나비기금이 올해로 어느덧 세 살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나비기금은 콩고민주공화국에서 내전 중 성폭력을 당한 후 다른 피해 여성과 아이들을 돌보는 활동을 펼치고 있는 마시카 카추바를 지원하며 날개를 펼쳤고, 콩고의 여성단체들과 성폭력 피해자들을 치료하는 병원 등에도 가 닿았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들을 돕는 활동으로도 이어졌습니다. 더불어 이 여성들의 이야기를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특별전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우리 사회에 널리 알리는 일도 함께해왔습니다.

2015년에도 나비기금은 꾸준히 조사와 지원활동을 이어가며 할머니들의 뜻을 전하고 많은 여성들의 고통에 연대했습니다.

● 콩고민주화국 내전 피해자 지원 활동 계속

계속되는 반군들의 공격과 위협으로 마시카는 근거지를 옮겨야 했고 이에 따라 나비기금 송금이 중단된 적도 있었지만, 다행히 올해는 계속해서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강간으로 태어난 아이들이나 내전 속에서 가족을 잃은 아이들의 엄마가 된 마시카는 나비기금을 아이들의 학교 수업료와 병원 치료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마시카의 활동을 지원하는 일 외에도 여성단체인 유시리카(Ushirika)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지난해 작업 차 콩고민주공화국을 찾았던 사진작가 정은진 씨를 통해 일시적으로 나비기금이 전달되기도 했던 유시리카는 내전 속에서 성폭력을 당했다는 이유로 가족과 친척, 이웃 등 공동체로부터 쫓겨나가거나 남편을 잃은 경우 등 내전 피해 여성들로 이루어진 모임입니다. 그런데 최근 M23 반군들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25명의 여성들이 마을에서 쫓겨나 그들을 지원하는 활동이 시급해졌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곧이어 안타깝게도 이 중 한 여성은 강간으로 인한 누관과 에이즈 감염으로 결국 사망했다는 소식까지 더해졌습니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세 차례에 걸쳐 나비기금이 전달되었고 피해 여성들을 위한 치료비용과 식료품 제공 등을 위해 쓰이고 있습니다.

● 나비기금에 온 마음을 더한 김복동 할머니

나비기금을 세상에 있게 한 김복동 할머니는 6월 24일 열린 1184차 수요시위에서 또 한 번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광복 70년 및 종전 70년을 맞아 분쟁지역 피해 아동들을 지원하고 평화활동가를 양성하기 위한 장학금으로 전 재산 5천만 원을 나비기금에 기부한 것입니다.

올해야말로 진정한 해방이 왔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던 할머니는 지금까지 그 래운 것처럼 당신이 먼저 평화를 향해 또 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할머니의 기부 소식은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차를 바꾸려고 모아왔던 돈을 부끄러운 마음으로 나비기금에 전하겠다고 고백이 이어지는가 하면 또 다른 기부 사연들을 만들어냈습니다.

● 베트남 조사 활동과 지원 확대

올해 나비기금 활동의 일환으로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베트남 현지 조사활동을 진행해 한국군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들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빈민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인터뷰를 통해 여전히 한국군에 대한 증오와 공포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피해자들 20여 명을 직접 만났고, 빈민성 인민위원회를 방문해 앞으로 나비기금 지원활동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청취한 피해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는 한겨레신문의 특별기사로 게재된 데 이어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의 광복 70년 특별기획전에 담겼습니다. 그동안 지원해온 피해자들에 더해 추가 확인된 피해자들에게도 나비기금이 전달되기 시작했으며, 향후 베트남 법률에 따라 지원활동을 위한 등록절차를 완료한 후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나비기금은 이스라엘군에게 고문과 강간을 당한 팔레스타인 여성에게도 전해졌고, 오는 12월 예정된 베트남 평화기행을 통해 평화의 싹을 틔우는 일도 계속합니다. 또 앞으로 콩고와 베트남을 넘어 분쟁과 무력갈등으로 고통을 겪는 피해자들을 찾아 더 큰 날갯짓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 2015년 지원 내역

베트남

한국군 성폭력 피해자 푸옌성 13명 + 빈민성 15명(2015년 후원 \$7,250)
* 푸옌성 매달 \$50(총 \$6,500) + 빈민성 \$50(총 \$750)
* (참고) 빈민성 현지사정으로 11월 지원재계 예정

콩고

- 레베카 마시카 카추바 \$3,000 + 유시리카 \$4,000
(2015년 후원 \$7,000)
* 유시리카 간접 지원 \$1,000
* (참고) 사진작가 정은진 콩고 방문 시 현장전달

나비기금 후원방법

1. CMS정기후원 신청
정대협 HP(www.womenandwar.net) > 후원과 참여 >
재정후원에서 필요사항을 입력해주세요.
2. 계좌입금
국민은행 069137-04-010752 (예금주: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나비기금))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나비 네트워크 활동보고

평화와 정의를 향한

나비 1. 평화나비

할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전국 도약의 날개를 펴다!



“할머니들도 열심히 날 테니, 우리 대학생 나비들도 열심히 날아라!” 평화나비가 할머니들께 응원영상을 부탁드리면, 김복동 할머니께서 종종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비’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함께 모든 여성들이 차별과 억압, 폭력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롭게 날갯짓하기를 염원하는 의미를 담은 상징물입니다. 할머니의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할머니들의 뜻을 이어받아 이렇게 날고 있다는 자부심과 더 열심히 날아야겠다는 용기가 생깁니다. 또, 자유와 평화를 만들기 위해 날고 있는 세상의 수많은 나비들이 한데 이어져 있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는 앞에서 유충, 유충에서 번데기로, 또 그 껍질을 벗고 날개를 달아 자유롭게 날아가기까지의 그 과정을 함께 겪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전국 대학생들의 모임의 이름도 그 뜻을 담고자 ‘평화나비’가 되었습니다. 평화나비 네트워크는 ‘기억한다, 행동한다, 함께한다.’라는 키워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의 역사를 제대로 기억하고자 하는 노력과, 그 기억을 더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에 행동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진심으로 평화나비 네트워크의 모든 행사들이 운영됩니다. 올해에도 평화나비는 2015 평화나비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서울·경기에서는 300여 명의 대학교 새내기들이 모여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캠페인을 각 학내에서 벌였습니다. 그리고 신촌 거리에는 1000여 명이 넘는 대학생들과 시민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제주에서, 전주, 부산, 춘천 등 각지에서 평화나비콘서트를 릴레이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8월 14일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에 맞춰 전국의 대학생이 모이는 ‘2015 평화나비 FESTA’를 열었습니다. 8월 13일에는 각 지역에서 시민들과 만나는 평화나비 거리제를 열었고 8월 14일에는 모두 서울로 올라와 평화나비 네트워크 전국총회를 열었습니다. 할머니들이 이제껏 만들어오신 평화의 역사를 대학생들도 함께 걸어간다는 전국 도약의 날개를 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일본 오키나와, 오사카의 대학생들, 재일동포 대학생들, 중국의 대학생들과 함께 동아시아 평화에 대한 국제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평화나비 FESTA 서포터즈들의 300인 토론회, 전국 평화나비 문화제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5년 하반기가 되어 서울, 경기, 인천, 춘천, 충청, 전주, 대구, 부산, 제주 9개 지역, 30여 개의 대학교, 500여 명의 평화나비들이 한창 날고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를 위해 평화나비 네트워크는 기억하고 행동하며, 함께하겠습니다. 전국 대학교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공론화시키고 해결을 위한 행동을 창의적인 대학문화로 정착시키는 데에 앞장설 것입니다. 평화나비 네트워크는 전국으로 퍼져나가 모든 대학생들이 ‘나비’가 되어 함께 펼 그날을 할머니와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나비 3. 청년나비

문제해결의 그날까지 청년들의 나비활동에 함께해주세요!



‘청년나비’는 의식 있는 젊은 청년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해 모여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3년 전인 2013년부터 평화의 우리 집을 방문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직접 만나고 봉사를 하는 작은 소모임으로 시작하여 올해 2월 정식으로 청년나비라는 이름을 만들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청년나비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통해 올바른 역사를 정립하고 여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강연을 시작으로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그 이후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알려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홍대 뮤지션과 함께하는 ‘청년나비콘서트’를 기획하고 공연 섭외부터 현수막 제작, SNS홍보, 장소 섭외까지 모든 회원들이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2015년 4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청년나비콘서트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관심촉구 캠페인에서는 세계1억인 서명운동을 비롯하여 나비기금 마련을 위한 나비물품 판매와 홍대 뮤지션들의 공연이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또한 아시아연대회의,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행사, 1178차 수요시위 주관 등 다양한 정대협 활동과 연대하고 있습니다. 청년나비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뿐 아니라 전쟁과 여성인권 그리고 최근 불어온 안보법안에 대해서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모든 청년들의 나비운동을 꿈꾸며 저희 청년나비는 함께할 청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본의 공식적인 사죄를 받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나비들의 힘찬 날갯짓!

나비 2. 희망나비

작은 행동들을 함께 모아 더 나은 세상으로 날갯짓하다!

희망나비는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통해 전쟁 없고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는 청년들의 모임으로, 전국의 대학 및 지역에서 모여 평화와 인권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올바른 역사인식을 위한 스터디, 국내외 평화기행, 일본대사관 앞 수요시위 참여, 피해 할머니 댁 방문, 세계1억인 서명운동 등의 활동을 진행 중입니다. 국내에서는 대학교와 각 지역에서, 국제적으로는 유럽의 프랑스와 독일, 체코, 벨기에에서, 중남미의 에콰도르와 볼리비아 등지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알리는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특히 수요시위나 서명운동에 참가하는 활동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보다 끈끈하게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연대로 이어질 수 있는 울타리가 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또한 광복 70년이라 불리는 올해, 박대통령과 아베총리의 회담과 아베담화 그리고 친일 독재를 미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정화 교과서를 발표한 사건에 대해 일본대사관 앞에서는 밤샘 철야 1인 시위를, 전국적으로는 약 일주일 간 각 지역의 소녀상과 학내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고 학우들과 시민들에게 이 문제들을 널리 알리려 행동했습니다. 이렇듯 희망나비가 시간을 쪼개가며 몇 분, 몇 시간이지만 1인 시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이유는 이러한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 분명히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 하나의 행동 한 번, 서명 한 줄, 1인 시위 한 시간은 작아 보이지만 전국의 희망나비들의 한 줄과 한 시간이 모이고, 그 한 줄과 한 시간을 지켜본 사람들의 마음이 모이고 생각이 모이고 행동이 모이면 역사를 그저 없애버리고 갈아엎으려고 하는 국정화 교과서와 문제의 해결 없이 덮어버리려고만 하는, 70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꼭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희망나비 활동을 하다 보면 가장 크게 와 닿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사회는 우리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할머니들 옆에 정대협과 희망나비, 평화나비, 또 할머니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여러 시민 분들과 같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이 사회의 그 누군가와, 그 누군가들과 모두 연결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를 만들어나가고 이끌어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잘못 풀어진 이 역사를 바로잡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희망나비 활동이 우리에게 갖는 중요한 의미는 '사람들과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명, 두 명 사람들이 모이고 관심을 가지게 되고 함께 열 걸음, 백 걸음 나가면 그 문제들은 해결이 되겠지요. 그때가 멀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까지, 또 그 이후의 사회까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비 4. 수원평화나비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평화!

2014년 5월 3일 수원평화비(평화의 소녀상)를 제막한 이후에 수원평화나비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원평화나비와 같이 활동하고 있는 수원청소년평화나비는 격월로 수원 세류동에 사시는 안점순 할머니 댁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또한 5월에 열렸던 아시아연대회의에서 정대협에서 소개시켜준 필리핀에 있는 릴라 필리피나센터에 수원평화나비가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5월에는 제막식 1주년 기념식, 7월에는 수요시위 주관단 체로, 8월에는 세계 일본군'위안부' 기림일과 수원평화문화제를 진행했습니다. 9월에는 추석을 맞이하여 안점순 할머니께 인사도 드리러 다녀왔습니다. 올 초에는 메르스로 인해 할머니께서 외출을 못 하셨는데 가을이 되면서는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게 되어서 너무도 다행이고 고마울 따릅니다.



나비 5. 평화나비 대전행동

진정한 해방을 위해 함께 날겠습니다!

3월 1일, 제막식 이후부터 대전의 많은 시민들이 평화의 소녀상을 찾아옵니다. 비문을 읽어보고, 자기 이름을 찾아보고, 주변에 있는 설명문을 읽습니다. 비을 때는 우산도 썩워주고 목도리도 감아주고, 화분도 놓아주면서 아픔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체별로 이곳을 찾아와 평화와 인권을 함께 배웁니다. '대전 평화의 소녀상 건립 시민추진위원회'는 평화의 소녀상의 건립취지와 과제를 대전 시민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평화나비 대전행동'으로 전환하였으며, 매월 두 번째 주 수요일 저녁 7시에 이곳에서 평화의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광복 70년이 되었지만 우리는 아직 해방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우리 같은 아픔이 없기를, 한반도가 시급히 통일되고, 전쟁 없는 평화의 나라가 돼서 우리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전 제막식 행사를 찾아주신 김복동 할머니의 말씀처럼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나비 6. 해남나비

평화와 인권회복을 향한 그 길에 늘 함께하겠습니다!

집에 계시면 집으로, 병원에 계시면 병원으로 할머니를 찾아 매주 수요일 길을 나서는 해남나비들은 2015년 3월 할머니께서 병원으로 옮겨 가신 후 매주 수요일 할머니를 만나러 병원으로 날아갑니다. 처음 병원에 가셨을 때는 많이 위독하셨는데 위기를 이겨내고 점점 기력을 회복해주신 할머니와 8월 14일 병원에서 해남만의 기림일 행사도 함께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기림일에 할머니는 당신의 소원을 물어보니 "바랄 것 없다. 내가 살아 있을 때 꼭 사죄는 받고 싶다. 다시는 몸을 짓(전쟁과 일본군'위안부' 제도 등) 하지 않겠다고 약속만 해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9월 1일은 할머니 생신이어서 목포, 강진, 해남 등지의 많은 나비들이 모여 즐겁고 따뜻한 생신상을 정성으로 차려드렸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내가 뭐라고 이렇게 먼 길을 찾아 나를 보러와 주는지 고맙고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겸손하게 고맙다는 말씀으로 우리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십니다. 해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점업 할머니와 함께하는 "해남나비"'는 이렇듯 매주 할머니를 찾아가고 할머니를 돌보며 지역에서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확장시켜 갈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할머니께서 살아 계실 때 해남지역에 '해남평화비(평화의 소녀상)'를 건립해보자는 지역의 의지들을 모아 추진위원회를 꾸려 중심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47개 사회단체들이 모여 창립한 해남평화비추진위를 중심으로 지역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기금모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해남교육희망연대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의 청소년들과 평화와 인권기행, 역사마당극 등을 진행했고, 지역주민들과 청소년들에게 역사 바로알기 위한 계기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등의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공점업 할머니의 인생을 역사극으로 재조명하여 표현해보자고 관심 있는 청소년, 해남나비들이 모여 대본을 쓰고 매주 일요일 저녁 7시에 모여 연극연습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연극은 12월 1일 토크콘서트 무대에 올려질 계획입니다.





평화와 인권의 배움터,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개관 3주년을 맞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은 많은 학생들이 꼭 한 번은 찾는 배움의 공간이 되고 있고, 세계 각국으로부터 오는 방문객들이 이곳에서 참 평화의 의미를 깨닫는 공간으로 여기며 돌아갑니다.

해외에서 오는 관람객 수는 총 관람객의 10퍼센트 정도이며 오는 나라들이 매우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2012년 3월 개관 이후 2015년 10월 20일 현재까지 박물관을 다녀간 방문객은 총 34,002명이며 해가 바뀔수록 박물관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 학교와 동아리 등이 박물관을 단체로 관람하는 비율이 높아졌고, 역사를 바로 알고자 박물관을 찾는 사람들도 늘어났습니다. 2015년 현재까지 방문객이 1만여 명으로 같은 기간 작년 대비 2천여 명이 더 많습니다.

점차 더 많아지는 관람객들과 교육의 요청이 늘어나면서 정대협 사무실 공간을 마련하며 작은 교육공간도 마련하였습니다. 이 교육공간을 통해 많은 청소년과 청년그룹들의 교육이 보다 규모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특별기획전: "광복 70년, 해방을 기다리는 여인들"

광복 70주년, 박물관 개관 3주년을 맞아 기획전시실 두 곳을 새로 열었습니다. 이전 정대협 사무실(관장실)로 사용되었던 공간과 지하 주차공간으로 사용되었던 곳에 "광복 70년 해방을 기다리는 여인들" 특별기획전을 마련했습니다. 2층의 기획전은 전쟁이 끝나고 고국으로 돌아온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가난과 소외 속에서 힘들게 살아왔던 모습을 바라보며 광복 70주년을 맞아 그들에게 와야 할 진정한 해방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지하 주차공간 자리에 마련된 곳에는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한국군인들에게 성폭력 당했던 피해를 입은 베트남 여성들의 이야기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그들의 고통을 통해 평화와 해방의 의미를 되새기는 공간입니다.



★ 살아있는 교육의 장으로서 박물관

2015년 박물관의 교육은 특별히 "박물관 길위의 인문학"과 연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박물관에 교육신청을 하면 DVD 관람 후 전반적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 및 인권, 평화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 오디오가이드를 대여받아 박물관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박물관 관람 후 노란 나비판 위에 평화의 메시지를 써서 직접 박물관 벽면에 달고 돌아갈 수 있는 활동도 하고 있어 청소년들에게 매우 유익한 박물관 관람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월례세미나가 꾸준히 진행되었습니다. 올해는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광복된 것과 동시에 조국이 분단된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맞추어 월례세미나의 주제 역시 다음과 같은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 식민주의와 과거극복의 정치 : 이재승(건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 한일협정 50년, 식민지 책임 청산과 과제 : 김창록(경북대학교 법학과 교수)
- 분단 70년, 분단에 저항하고 평화의 길을 묻다 : 유영재(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
- 해방 70년, 제주와 오키나와, 그리고 일본의 안보법제 : 이명원(문학평론가,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시민교과 교수)



★ 자원활동가들의 봉사와 헌신으로 움직이는 박물관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에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자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년 2회(3월, 9월) 자원활동가를 모집하여 교육한 뒤 활동하게 합니다. 활동내용은 매우 다양합니다. 1억인 서명 캠페인, 수요시위 도우미, 나비판 제작, 박물관의 도슨트 역할, 자료실 정리, 박물관 청소 등 매우 다양한 일들을 모두 즐겁게 맡아서 해주고 있기에 박물관과 정대협 활동이 원활히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원활동을 해주시는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억인이 서명을 대까지

나비들의 날갯짓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



정대협은 2013년부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한 분이라도 더 살아 계실 때 조속히 문제해결을 이루고자 세계1억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시민들의 참여로 2014년 8월 13일 세계 일본군'위안부' 기림일에 150만 명의 서명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올해도 3차 세계 일본군'위안부' 기림일을 맞아 7월부터 한 달간 집중 서명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전국적으로 서명운동 바람이 불어 주말마다 시내에서, 대학 캠퍼스에서, 노동 현장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서명운동이 진행되었고, 대전, 거창, 인천, 성남, 청주, 고양, 서산, 익산, 의정부 등 각 지역 단체와 학교에서 받은 서명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정대협도 홍대입구 거리에서 한성여고, 예일여고, 이화여고 학생들과 함께 서명운동을 진행했습니다. 한 시간에 천 명이 넘는 시민 분들이 서명에 참여할 만큼 문제해결을 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다는 사실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하고, 회원단체와 연대단체에도 적극적으로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한국노총은 기림일 주간 집중 서명캠페인으로 서울지역본부에서 12,016명의 서명을 전달한 것에 이어, 8월 12일 기림일 행사에 맞춰 한국노총 전 지부에서 받은 총 20,190명의 서명지를 보내주셨습니다. 특히, 평화나비와 희망나비는 정대협과 함께 제3차 세계 일본군'위안부' 기림일 행사를 준비하면서 모든 회원들이 세계1억인 서명운동에 참여했는데, 그 결과 평화나비는 35,251명의 서명을, 희망나비는 14,825명의 서명을 수요시위에서 전달했습니다.

올 한해 국내에서는 광복 70년을 맞아 할머니들의 진정한 해방을 바라는 마음이 서명으로 이어졌습니다. 전주에 계신 김판수 선생님은 1월 11,220명, 5월 81,520명의 서명을 개인의 힘으로 받아 올해만 벌써 총 98,180명의 서명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울산 평화나비 1,692명, 부산 평화나비 3,049명, 부산청소년평화나비 1,820명, 춘천 평화나비 3,020명, 인천 인명여고 1,207명, 대전 탄방중 반크 855명 등 전국 각지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마음을 모은 서명을 보내주셨고, 정대협 회원단체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여신도회 전국연합회에서도 34,804명의 서명으로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해외에서도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셨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알파에서도 1,472명의 서명을 보내주셨고, 미국 애틀랜타 에모리대학 155명, 터키 코윈(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134명, 뉴질랜드 코윈 367명, 세계한민족여성재단 미국 워싱턴 컨벤션 52명, 미국 시카고 여성찾라인 122명, 캐나다 토론토 희망21 등과 정대협 일본, 미국, 유럽 캠페인에서도 서명에 참여해주셨고, 하루속히 문제가 해결돼 할머니들의 명예와 인권이 회복되길 바란다는 연대의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세계1억인 서명은 현재 정대협 홈페이지에서 한국어, 영어, 일본어, 독어, 프랑스어, 중국어, 이탈리아어, 베트남어, 터키어로 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수요시위 현장에서 서명에 참여하실 수 있고, 각 학교나 단체에서 서명캠페인을 진행하실 때 필요한 전시물 및 홍보지, 나비기금 후원물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계1억인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그 순간부터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행동에 한걸음을 내딛은 것입니다. 문제해결의 그날까지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창립 2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할머니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일본정부에 의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저질러진 일본군'위안부' 범죄를 인정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사죄와 국가적 배상, 역사교과서에 기록 등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

정의를 승리하는 역사를 만들시다.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일본정부는 법적 책임을 이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는 역사를
만들 것입니다.



2015.11.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이미경

세계1억인 생명공동체확대사업

● 예일여자고등학교 역사동아리(飛(아미)) 6기 회장 황 공 경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생명공동체 중립

니다. 서명 부탁드립니다.”

무더운 여름날, [飛(아미)]의 외침이 흥대 인근의 길고 싶은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물론 시작부터 쉬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기만 한 목소리로 지

나가는 사람들과 눈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고집도 선포 단적 다가와 서명에 동참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 우리는 점차 힘을 낼 수 있었 습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전 세계 1

억인 생명공동체”를 하면서, 저는 우리로 인해 무관심 했던 시민들의 눈빛이 관심으로 빛나는 것을 보았 습니다.

그것을 보고 저는 잠시 우리가 틀린 방향으로 반 사된 빛이 사람들에게 전해진 듯한 착각이 들었습



니다. 때로히 적힌 서명란을 보고, 사람들이 힘을 모 으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깨닫는 데 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 그 변화 속에서 저는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와 진실 에 대해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다는 희망을 보 았습니다. 그것은 비단 흥대에서뿐만이 아니었습니

다. 시청에서 촛불 문화제가 열리던 날의 함성과 열 기로 가득한 현장의 분위기는 절대 잊을 수 없을 것

입니다. 우리는 생명공동체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일본 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알렸지만, 오히려 저희가 그

문제를 배운 점이 더 많았습니다. 그분들 중엔 기원 인, 목사, 교사, 고사뿐 아니라 저희보다 어린 친구들도 있



니다. 항상 ‘학생이니까 나는 이 정도밖에 도움을 드 리지 못할 거야’라는 한계를 이미 자신 안에서 그 아버렸던 저는, 이것을 통해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이해하는 데 나이와 성별, 직업 같은 것들은 관련이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정기적으로 정대함과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작 은 것 하나에서부터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3개 언어(영어, 일본어, 한 국어)의 피켓이 수요시위나 각종 기자회견에 사용 될 때 부딪히며 다시금 힘을 얻었습니다. 이런 힘 을 바탕으로 우리는 앞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해 결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촛불문화제에서 기도하 던 사람들의 희망을 실현시켜 나가도록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 이화여자고등학교 한결같이:북,물다공 중학생회자 공 소 정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삶을 보고 들 으면 마음이 아프고, 힘이 없는 고등학생이지만 무 엇인가 우리가 직접 할 것은 없을까 생각이 들어 지

단 몇 년 전부터 저희 이화이고 역사동아리에서, 세 계1억인 생명공동체를 학교에서 진행해왔습니다.

그때 함께 권 적이 있다면, 우리는 모두 한마음이 었고, 한 뜻을 향해 가고 있었다. 라는 사실입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고등학생들은 한국정신대 문제대책회의와 함께 거리로 나가 세계1억인 서 명공동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또 거운 여름날이었지만 다 같이 한복소리로 한뜻 을 외친다는 것이 너무나도 기뻝기에, 오고가는 사



다. 경합은 잘 지치지 않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저마다 친구들이 서명한 경험들, 거리에서 서명에 참여해주신 시민들, 그리고 거리로 나섰던 바로 우리들의 경험은 일본군‘위안부’ 피해 자 할머니들을 위한 작은 몸짓이었기

에 너무나도 행복했고, 저마다의 가슴을 울렸습니

다. 너무나도 행복했고, 저마다의 가슴을 울렸습니





쉼터 평화의 우리집

“따뜻한 사람들이 모이는 뜰”

사계절이 뚜렷한 '평화의 우리집'도 2012년 연남동으로 이사한 후 어느새 네 번째 가을을 맞습니다.

세월의 흔적만큼 할머니들에게도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작년부터 치매가 심해 꽃줄에 의지하여 영양식으로 식사를 하시며 전혀 거동을 못해 요양병원에 계시는 98세의 이순덕 할머니와 근시에 의한 황반변성으로 눈에 직접 주사를 맞았지만 노환으로 점점 앞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시는 90세의 김복동 할머니, 당뇨 합병증으로 염증이 생겨 고생하시는 88세의 김원옥 할머니, 작년과 많이 달라진 할머니들의 모습에서 아픔을 느낍니다.

하지만 할머니들의 곁에서 격려와 많은 힘을 보태어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우리 문제를 위해 앞장서겠다는 각오로 아픔을 숨기면서 수요시위뿐만 아니라 국내의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김복동, 김원옥 할머니를 보면서 다시 힘을 얻습니다.

2015년 올 한 해도 많은 분들이 쉼터를 위해 애써주셨습니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매주 1회 할머니들의 치료와 건강상담, 심리상담을 해주시고 할머니들의 말벗이 되어주시는 윤영식 박사님, 할머니의 치매예방과 자존감 향상 및 성취감 고취를 위한 치료교실의 원예치료 정신아 선생님과 미술치료 신혜원 선생님.

또한 매달 할머니들께 영양제를 부여해주시고 명절날과 어버이날에는 선물도 가득 가지고 방문해주시는 연세의료원노동조합, 김장철에는 다 같이 모여 할머니들과 함께 김장김치를 담그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가지며 복날에는 싱싱한 닭과 수박 등을 가지고 방문하는 아이쿱생협 서울지부, 틈틈이 할머니들의 건강을 위한 공진단과 한약을 보내주시는 종로의 화창한의원 홍정숙 님, 오랫동안 싱싱한 굴이나 멸치 등을 산지에서 직접 주문하여 보내주시는 윤동석 님.

매주 1회씩 직접 키운 채소와 달걀, 두부 등을 택배로 보내주어 할머니들의 영양을 위하여 힘써주시는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연니네텃밭, 월 1회씩 손수 반찬을 만들어 방문하며 할머니들의 안부를 챙기는 나라사랑청년회, 틈틈이 안부전화를 하며 할머니를 걱정해주는 미디어몽구 님, 할머니의 안전을 위해 애써주시고 방문하여 할머니들을 챙겨주시는 연남동 파출소장님과 직원 분들.

또한 일요일 오후에 쉼터 청소를 해주시는 '보듬이'(둘째 주)와 '강서미권스'(마지막 주), 그 외 명성교회와 희망봉사단, 수원 매원교회, 여성미술인협회 등 많은 분들이 고마움의 손길을 전해주시며, 해외에서 방문하여 할머니들의 이야기도 듣고 할머니들의 아픔을 함께 공유하기도 합니다. 일일이 나열할 수 없지만 꾸준히 후원금과 물품, 많은 관심, 그리고 할머니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기도해주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5

icoop 생협
기억하고 함께하겠습니다.

www.icoop.or.kr 가업문의 : 1577-0014 도움센터 : 1577-6009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은
한국사 국정화 교과서 반대합니다.



정대협 25주년 기념 특별상 수상자들을 소개합니다

정대협 창립 25주년 후원의 날을 맞이하여 특별한 상을 수여합니다. 2007년부터 시작된 이 상은 그동안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 운동을 함께 펼치며 정대협의 든든한 지원자로 함께해주신 분들에게 수여됩니다. 제9회 수상자들의 영광의 얼굴과 각 상의 취지 및 의미를 간단히 소개합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해 열심히 달리고 있는 당신, 바로 다음 해의 주인공입니다!

김학순상이란?

김학순 할머니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임을 최초로 밝혀 용기 있게 증언하셨고 마지막 남은 한숨을 토해 낼 때까지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몸을 바치셨던 분입니다. 이에 열정적인 운동을 펼치며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알림이로 함께해주신 분께 드리는 상입니다.

(마리몬드)



매주 수요일 12시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장소에 매주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여러분 가운데 마리몬드가 꼭 있습니다. 마리몬드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알리고 해결하기 위해 함께하는 사회적기업입니다. 심달연 할머니, 김순악 할머니 등 피해자 할머니들의 작품을 모티브로 옷, 가방, 액세서리 등을 만들어 판매하며 그 수익금을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여러 활동에 환원하는 기업입니다. 마리몬드는 수요시위뿐 아니라 정대협이 하는 행사에 언제나 함께 하는, 할머니들과 정대협의 친구입니다. 수시로 할머니들 건강상태와 안부를 묻고 할머니들 복지에 후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명절이나 어버이날이면 여김없이 선물을 들고 할머니들을 찾아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누구보다 빨리 달려와 할머니를 추모하고 슬픔을 함께 나눕니다. 정대협에서 하는 아시아연대회의나 기림일 행사, 평화기행 등 행사에 늘 참여할 뿐 아니라 물품 후원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할머니들과 정대협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는 사회적기업 마리몬드, 항상 밝게 웃는 얼굴만큼이나 마음이 예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의 수상자

(영화 <귀향> 제작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알리고 해결하기 위한 활동이 각계각층에서 여러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화 <귀향>도 그중 하나입니다. <귀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로, 전쟁과 군국주의라는 엄청난 격변 앞에서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모조리 빼앗긴 실패 소녀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촬영은 이미 끝났지만 배급을 하기 위해 후원과 뉴스런딩으로 모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화 제작과 개봉이 만만치 않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끔찍하고 억울한 범죄에 희생되기도 사죄받지 못하고 70년을 기다려오고 계신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알리고자 귀한 영화를 만들어 세상에 내놓기 위해 노력하시는 조정래 감독님과 배우들, 제작사와 여러 스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 <귀향>과 같은 영화가 많이 제작되어 일본군'위안부' 희생자들이 위로받고 다시는 같은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깊이 느껴기를 바랍니다. 영화 <귀향> 제작팀의 노고에 응원을 보내며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영원히 기억되도록 작품을 만들어 이 문제를 알리는 데 큰 공헌을 하고 계신 제작팀에게 김학순 상을 드립니다.

강덕경상이란?

강덕경 할머니는 일본군'위안부'로 겪었던 아픔을 그림으로 승화해서 그림으로도 운동을 하셨고, 죽음을 눈앞에 둔 병상에서조차 범죄 인정과 법적 책임을 회피한 채 위로금으로 무마하려 했던 일본의 '아시아국민기금'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라도 싸우겠다는 굳은 의지를 잃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강덕경 할머니처럼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분께 드리는 상입니다.

(김서경, 김운성 작가)



올해 들어 대전, 울산, 전주, 원주, 세종시, 의정부 등 전국 곳곳에서 세워지고 있는 평화비, 일명 평화의 소녀상, 수요시위 장소인 평화로에 앉아 두 주먹을 쥐고 자국이 일본대사관을 바라보고 있는 소녀는,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에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고민하던 김서경, 김운성 작가의 고민의 결과입니다. 정대협과 함께 고민을 이야기하던 중 평화비를 생각해냈고, 이제 그 소녀는 우리나라 전국에서, 미국, 캐나다 등 해외에서 전쟁 없는 평화 세상을 함께 만들자고 조용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평화비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전쟁, 인권, 평화에 대해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는 지역 시민들과 학생들의 교육의 장으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김서경, 김운성 작가는 새로 건립을 준비하는 지역에서 요청하면 어디든 달려가 평화비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강연이나 콘서트에 참석해 이 문제를 알리고 동창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평화비 건립 운동과 평화를 향한 우리의 외침은 지금도 앞으로도 현재 진행형일 것입니다. 그 길에 함께하고 계신 김서경, 김운성 작가님께 강덕경 상을 수여합니다.

올해의 수상자

(장효정 감독)



2~3년에 한 번씩 버전업이 되어 나오는 정대협에서 제작한 교육용 영상물, 정대협의 특별한 행사 때마다 상영되는 영상물을 보면서 어쩔 이리 잘 만들었을까. 많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전해 들어서 좋다.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정대협에서 제작하여 상영되고 있는 대다수의 영상물은 한 사람의 노력과 열정으로 만들어집니다. 정대협 활동가들에게는 감독님이라는 호칭보다는 언니라는 호칭으로 더 더욱 친근한 장효정 감독님, 장 감독님과 정대협 인연은 벌써 15년이 되어갑니다. 2000년 일본군 상노예전범여성국제법정 촬영팀으로 정대협과 인연을 맺어 그 오랜 시간 동안 전국 각지를 정대협과 함께 할머니들을 만나보고 할머니의 증언을 영상으로 남기고, 또한 혹여 잊어버릴까 녹취까지 수고와 노력을 마다하지 않았습니. 손을 많이 필요로 하는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이자 홍대에서 가장 유명한 인도카레음식점(산)을 직접 운영하는 사장님이면서도 도움이 필요한 정대협이 빠듯한 일정으로 부락하러 바쁜 일상 속에서도 언제나 끝끝내 외쳐주며, 중요한 행사 때마다 감동스러운 영상으로 우리를 울리는 장효정 감독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장효정 감독님께 강덕경 상을 수여합니다.

나비의꿈상이란?

정대협 운동은 어느새 나비와 함께 날갯짓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들의 명예와 인권, 그분들의 고귀함을 뜻하는 보라색과 함께 따뜻한 연대의 의미를 가진 노란색 나비가 정대협 캠페인 때마다 모습을 보입니다. 나비는 무엇보다 할머니들이 진정한 해방의 날갯짓을 펴는 순간을 염원하며, 폭력과 차별에 고통받는 모든 여성들과 약자들의 해방을 꿈꾸는 힘찬 상징물입니다. 정대협 운동이 나비의 힘찬 날갯짓처럼 펼쳐질 수 있도록 함께해주신 자원봉사자, 숨은 일꾼, 든든한 후원자에게 드리는 상입니다.

(광영여고 대흥나비)



따로 "내 정대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100만 나비달기 운동을 하고 있는 광영여고 학생들인데요. 저희가 모금한 기금을 나비기금에 전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해서 시작된 대흥나비와의 만남. 그저 기특한 친구들 이라고만 여겼던 이 친구들이 큰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대흥나비는 직접 나비배지를 도안하고 제작하여 학교가 소속된 양천구 내의 거점 지역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 홍보활동도 하고 온라인에서 100만인 나비 달기 운동 캠페인도 진행하고, 시아존수, 제국의 아이들 등 유명 연예인이 직접 나비배지를 달고 나올 수 있도록 활동해왔습니다. 주문을 받으면 아간자물학습 시간 틈틈이 일을 분담하여 일일이 포장하고 발송까지 도맡아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은 판매수익만 2000여만 원. 어른들보다 배포가 훨씬 큰 대흥나비는 판매 수익금을 나비기금에 전액 기부하였습니다. 나비배지 홍보와 판매에 너무 매진하여 학업을 걱정하는 어른들이 열려하자 전쟁과여성인권 박물관에 판매를 요청하였고 나비배지는 더더욱 세게로 향해 날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흥나비는 지금도 나비배지 홍보를 비롯하여 수요시위 주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세미나 활동 등 좀 더 여러 가지 영역에서의 날갯짓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수상자

(예일여고 역사동아리 I飛(아이비))



2012년 5월 5일 박물관이 개관하자마자 중, 고등학생들의 단체 관람이 줄이어 진행되었습니다. 이때 인연을 맺은 예일여고의 I飛(아이비). 박물관을 관람한 후 다들부터 매달 한 번씩 수요일, 오후 시간에 박물관에서 자원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자그마한 박물관에서 20여 명이 넘는 친구들이 한꺼번에 자원활동을 하기에는 공간적인 면에서 쉽지 않았습니. 움직이기도 어려운 좁은 사무공간에서 한 사람이 나가기 위해서는 다른 한 사람은 설 수밖에 없는 너무나 좁은 공간에서 문서를 정리하고, 나비배지를 만들고, 지하공간 물청소에, 봄·가을에는 정원청소도 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은 박물관에서만 그치지 않고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세계1억인 서명운동을 학교에서, 거리에서 진행해왔습니다. 벌써 4년이란 시간 동안 정대협과 박물관과 함께한 I飛(아이비) 동아리의 활동. I飛(아이비) 예들아, 너희는 지금 역사를 만들어 나가고 있어. 너희들의 활동, 박물관과 함께 끝까지 갈 거지. 기대해 보자.

1. 정당합후원(개인)

강기환 강경만 강경진 강경희 강난희 강덕주 강래희 강
명신 강명옥 강문희 강미미 강민영 강봉수 강빈 강성혜
강세미 강수나 강수혜 강송혜 강애란 강연희 강영숙 강
영주 강우성 강윤정 강윤희 강인숙 강창에 강홍수 강주
희 강지민 강지현 강홍호 강필재 강혜정 강희영 고경일
1 고경일2 고규현 고숙희 고희진 고유미 고유휘 고윤희
고은정 고은정 고현정 고영선 공유라 카카보 카영기 카
미리 객소희 객현숙 구미주 구우영 구자서 구자숙 구창
본 구대영 권미란 권보현 권세현 권소영 권수연 권승임
권순자 권승미 권영은 권영주 권영화 권일 권지영 권하
나 권현정 권혜영 권내야 가성찬 갈관옥 가감람 김강산
하 김강성혜 김진우 김경수 김정은 김경희2 김경희3 김
규대 김규태 김가을 김나연(박나연) 김나영 김나중 김남
희 김누리 김다영 김다예 김다현 김달 김대옥 김대환 김
대환1 김대환2 김도현 김동규 김동석 김동은 김동희1 김
동희2 김두비 김명실 김명우 김명희 김문주 김미정
미라 김미란 김미소 김미연 김미정 김민서 김민정 김
복 김민지 김민혜1 김민혜2 김민아 김병복 김봉수 김광
출 김광희 김병복 김보경 김보미 김보연 김보영 김보중
김복순 김봉수 김빛나 김사빈 김삼석 김상현 김상희 김
서경 김서영 김서을 김서현 김선미1 김선미2 김선에 김
선영 김선옥 김선화 김설인 김성란 김성민2 김성현 김
성훈 김성희 김세은 김소연 김소영 김송이 김수경 김수
란 김수연 김수정 김수형2 김수지 김수진 김수현 김순
영 김순희 김승현 김서민 김신 김진기 김재래 김이리 김
여은 김연교 김영정 김연하 김연희 김연희 김연근 김영
미 김영빈 김영숙 김영주1 김영주2 김영찬 김영채 김영
철 김영호 김영혜 김예미 김예지 김예지2 김옥현 김용
란 김용훈 김우영 김문성 김현규 김유석 김우정 김유진
김윤경 김윤기 김윤성 김윤영 김윤정 김윤희 김은경1 김
은경2 김은석 김은숙 김은실 김은주 김은주 김은진 김
은혜 김진희 김진정 김민재 김현정 김재홍 김자미 김창
선 김창아1 김창아2 김창우 김정운 김정은1 김정은2 김
정화 김종옥 김종은 김종찬 김종희 김종희 김주영 김주
현 김준영 김지선 김지연 김지현 김지는 김지현 김지혜
김진비 김진2 김진경 김진아 김진연1 김진영2 김진우 김
진현 김진희 김진희 김진희 김찬솔 김창희 김태근 김태
동 김태영 김태아 김태영 김한걸 김하나 김혜복 김혜성
(함은수 한현수) 김함기 김항중 김한진 김현경 김한미
김한서 김한수 김현아 김현정 김현진 김항만 김혜동 김
혜란 김혜미 김혜선 김혜원 김혜정 김호 김홍란 김효숙
김효주 김효진 김희국 김희연 김희옥 김희정 김희주 나
성광 나원희 나윤정 나민준 나인영 남미희 남순우 남유
선 남혜림 노경미 노미진 노수진 노영수 노유진 노주희
노화정 노영미 도은숙 통영숙 류동철 류미경 류보림 류
송아 류원정 류정현 류주현 류효정 마은아 명영숙 명인
형 문선 무영 문계정 문기급 문만삼 문보람 문소는 문예
희 문윤주 문윤희 문정숙 문주영 문지수 문지영 문현아
문혜진 민도정 민병관 민지현 박기찬 박광림 박광민 박
경민2 박경진 박광희 박경희 박계순 박수진 박근영 박
근희 박기자 박나리 박다운 박동주 박리리 박영진 박미
서 박미선 박미영 박미지 박민철 박민희 박병하 박보은
박성욱 박성필 박상희 박서별 박서연 박선녀 박신아 박
선영 박선주 박석희 박설아 박성연 박성연 박성용 박성
희 박석연 박석비 박석현 박석희 박소연 박소은 박소주
박수진 박수현 박수복 박순원 박수연 박수혜 박수지 박숙중
박신영 박창우 박연희 박영희 박영희 박옥혜 박유빈 박
유진 박윤경 박윤정 박은경 박은미 박은정 박은지 박인
아 박인에 박정원 박재옥 박재준 박정란 박정란 박정미
박정민 박정선 박정숙 박정아 박정애 박정인 박정혜 박
정훈 박종철 박주원 박주현 박주원 박준규 박준희 박준
권 박지민 박지숙 박지은 박지현 박지혜 박지후 박지은
박진영1 박진영2 박찬재 박태진 박해경 박혜순 박한윤
박한정 박한진 박해란 박혜미 박혜선 박혜영 박혜정 박
홍의 박효빈 박효수 박희진 박보은 박용숙 박유미 박지
은 박정민 박동훈 박은주 박미소 박보애 박수진 박윤지
박윤정 박은경 박용덕 박재은 박정연 박지현 박효정 박
규성 박나리 박승일 박시진 박석선 박민선 변미숙 변유
선 변지리 변재현 부선희 서문옥 서미서 서미정 서민정
서상희 서용원정 서은애 서일환 서재은 서창훈 서준우
서준호 서하나 서현아 서형숙 서혜영 서희영 서희정 석
병애 석조은 선현주 선혜란 설정미 설희지 설가영 설성
희 설승혜 설지현 설혜란 소미자 소연실 소현우 소현자
송경아 송미경 송미희 송민아 송수미 송영미 송영희 송
수현 송수연 송유기 송유정 송유진 송은주 송은하 송
인경 송재옥 송정숙 송정은 송정주 송주희 송진선 송하
경 송현수 송혜란 신가민 신가정 신관섭 신관선 신다영
신동영 신동은 신명실 신미숙 신미영 신수경 신수태 신
예슬 신윤환 신우진 신지영 신정경 신현미 신혜라 신하
현숙 신혜선 신혜숙 신효철 신윤환 신희림 심미진 심은
석 심인숙 심재경 심재옥 심재환 안경주 안경희 안봉하
안상규 안성 안선미 안영아 안영환 안은경 안정원 안지
아 안창록 안창진 안채란 안하늘 안형진 안효영 안홍빈
안효광 안효주 양다희 양원 양미애 양보름 양세이 양수
희 양승환 양영일 양영석 양인연 양정희 양정숙 양정숙
양현아 양희정 양기현 양설 양서우 양소라 양영희 양윤
나 양상화 양정우 오경희 오대진 오영삼 오미연 오미애
오명순 오보람 오수대 오수미2 오수빈 오슬기 오은진
오정민 오지연 오진희 오차재 오창균 오혁준 오혜진 왕
서연 왕은미 왕선아 우정 우지선 우현을 우현을 우혜정
원미란 원선영 원지우 원형미 원화라 위경록 위영탁 위영
대영 유미정 유미희 유미주 유재하 유영진 유영진 유영
진

“

한 해 동안 도움주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순 유재는 유종호 유진아 유지선 유하영 유현실 유혜영 유희숙 유혜정 유경순 유광용 유금미 유기철 유덕희 유명하 유미애 유미향 유병석 유병세 유봉식 유석준 유아람 유아용 유영미 유영주 유은정 유재서 유정옥 유정희 유준희 유주희 유지나 유지현 유지호(백성운) 유진희 유하영 유혜정 유화영 운화주 이가현 이기영 이가희 이경애 이경하 이연희 이경민 이경선 이경선 이경환 이경희 이고이 이광주 이귀진 이규희 이근의 이근혜 이근화 이금자 이기만 이가선 이길호 이나래 이나리 이나영 이남현 이다혜 이달호 이대희 이덕운 이도경 이도환 이돈근 이동은 이동현 이동호 이리나 이명원 이명익 이명주 이명철 이문영 이마경 이미림 이미소 이희숙 이미영 이미옥 이미정 이미진 이민경 이만철 이만철 이만재 이보람 이봉조 이부연 이삼규 이상민 이상선 이상아 이상열 이상미 이서희 이선 이선경 이선연 이선영| 이선영2 이선희 이성희 이소연 이소정 이슬즈 이수민 이수정 이수진 이수진2 이수진3 이수현 이수희 이숙희 이순영 이슬기 이슬원 이슬음 이슬희 이슬희 이슬원 이애나 이해정 이연우 이연모 이연하 이영국 이영남 이영희 이영성 이영우 이우선 이원석 이원정 이운 이운주 이윤미 이윤의 이윤재 이윤정 이윤하 이윤경 이윤애 이윤영 이은옥 이은정| 이은정2 이은지 이은희 이은숙 이임표 이창호 이재철 이재환 이재준 이재희 이정기 이정철 이정모 이정민 이정식 이정선 이정순 이정순| 이정순| 이정순2 이정영 이정희 이정희 이재택 이종훈 이주연 이주영 이주혜 이자영 이지선 이지연 이자영| 이자영2 이자혜 이진규 이진이 이진호 이창학 이채원 이춘모 이태민 이하림 이한솔 이현서 이현옥 이현우 이현정 이혜선 이혜영 이혜원 이혜진 이혜원 이호수 이홍 이효순 이희선 이희숙 이희정 임경옥 임경진 임원정 임병모 임수진 임숙희 임승창 임원철 임영숙 임윤정 임근국 임근정 임근주 임금영 임홍희 장병민 장다은 장민정 장선정 장세은 장세현 장옥하 장은임 장은희 장인숙 장정연 장정용 장천우 장혜연 장혜영 장혜원 장혜원 장희정 전경아 전미희 전성덕 전성만 전순희 전애선 전유진 전진선 전재구 전정희 전진호 전지한 전지호 전진경 전진영 전혜민 전희숙(전정만) 전희재 정기영 정귀용 정리나 정덕 정달보 정성삼 정용영 정희선 정미숙 정미영 정미용 정만영 정보라 정보영 정상조 정서의 정서현 정선희 정성민 정성훈 정소연 정수현 정시나 정연수 정연홍 정연희 정영삼 정영애 정영은 정예솔 정윤송 정윤호 정윤근 정은영 정은정 정은주 정은지 정은혜 정민숙 정일영 정지연 정재훈 정재희 정혜원 정준라 정주는 정지숙 정지영 정지은 정지은 정진숙 정찬원 정태용 정태진 정태관 정혜옥 정혜진 정효경 정호연 정희영 정효민 제미영 조강희 조경애 조경희 조선아 조선희 조선휘 조성준 조세라 조수진 조수훈 조시연 조아라 조연경 조용남 조윤희 조윤희 조은미 조은정 조영아 조주현 조재애 조한미 조희연 조혜연 조혜영 조혜원 조홍찬 조효진 조희안 조경진 주경진 치현주 지혜원 진디영 진소희 진승일 진승재 진현정 차도현 차영미 채명정 채영원 천상우 천아름 최경민 최경하 최광현 최나리나 최광숙 최미나 최민숙 최바리 최병모 최성훈 최선경 최소영 최소희 최순덕 최승식 최인나 최영란 최영숙 최영옥 최영은 최영하 최유리 최윤미 최윤희 최윤정 최윤희| 최윤희2 최은재 최은숙 최은영 최은우 최인영 최일광 최재민 최재희 최정애 최종진 최희현 최진호 최철용 최춘자 최필숙 최필원 최현우 최현준 최혜림 최혜숙 최혜원 권희주 표선희 허민용 하유진 하준문 하주연 함경선 함경희 한국영 함동기 함동식 함민현 함민경 함민지 함상대 함상아 함석은 함성미 함성이 함세화 함송이 함수정 함아를 함운선 함윤주 함은미 함은주 함병호 함정희 함현호 함혜민 함현인 함선영 함현진 허금구 허두영 허보연 허상희 허상대 허순숙 허은실 허태호 허지은 홍기택 홍미라 홍미영 홍보영 홍성은 홍세림 홍수임 홍수현 홍순혁 홍윤희 홍인기 홍주미 홍주현 홍진선 홍조용 홍혜숙 홍규미 함리나 함상진 함서연 함선민 함수정 함수진 함시나 함옥선 함유진 함의정 함인재 함철환 함화숙 함희정

2. 정대협후원(단체)

2014년인천예교2-2 3.8경기여성대학교총비위원회 강
원총천니비 경복산상중 국민은행상산동자정 권선교3-1
김모여중3-6 내는공수다끼며 노동자교육기관 대전예교
3-1 덕산교301 독산교 동내학방가흥내덕놀이터 두창
초 6학년 디자인아트 마리모노 마법방과후 마식교 매일
교회 목포정보중 문순 문열외교 마힘예교역수동외리
문외교 변비술이도미리문 필천신민교회 사한외교 사회
참여동아라울림 새예교회 새정치민주연합서울시당여

성원회칙 상각하는예법에 서정대(서) 서울일본인교회 선
일여고한시감삼년 성보경영고형복합사만 성석고 성신
여대 세종대동아리범부 소리드림 수원평화나비 시니어
뉴비전 시민광장경기 신철고 출신 신방학중 아름다운가
이모래퍼시픽 연남동파출소 연세대발아회화 열기혹온진
실 영명고조원희 영일고고교반크 예술여프 예술고한별
만 현연고고한울 오산중독도 용강교회 울산남호중 울산
장곡다리웅센터 울산평화초대성신침주원회칙
민관고봉사부 의정부여고 의정부여대장신침주원회칙 이
회민주동우회 인명여고 인명여고1-61-81-9 인명여고
이이크업동아리 인명여고졸업생 인명여고푸른날개 인
명여고3-11 인천여고 잠실중3-5 장곡중 전수친한성여
중 정의여고3-10 제주평화교회 진선여고인관대허가빈
착한사람들의모임 참여여평화로가는원주 참성교제중유
니운동여의 청소년교 장파교회 초창조 춘천전원교회
유만 평화불만드는여성회 프란치스코회 프란치스코 한국
BOM여성리더십위원회 한국기독교회평화봉사단 한국노동
조합총연맹 한국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국원예치료학
지협회충북지부 한솔고소시오 한일여고 한남고 호재여
사동아리 효명고토스마이트동아리 흥사단서울지부여성
분회

3. 해외후원

COMMON SERVICES CORPORATION Diego Park Eric Gleason Kevin Smith SILICON VALLEY COMMUNITY FOUNDATION Steve Smulyi Noori Chai 김지은 다나카 히로미 동남아청아동들을 지원하는 모임 마루야마다케코 무명 미즈고치테츠아 박해정 세노기요 스즈키유코 신청모구순회신사랑 심승자 안대세현임성 양정자 오시모타키오 오키나와청정정신보건연구회 울연대 이진선 (ZINGERB) 일본기독교보부인동회 일본북쪽교회직원회 의회 자치농도모도청정민도농조합 자치농도청정민도농조합복지보국외교부 자원한인여성회 진대철 최원홍 (재외동포신문사) 한영호 조세계로미재광학회 한영호

4.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후원

The First Church of Christ Congregational 김억주 강
영숙 강창에 고경국 고아라 고옥미 고유정 고은희 고은
경 고정에 구난희 구만경 구자순A 구자순B 권기하 권
보현 권현재 권호 김기행 김광숙 김강희 김귀국 김나혜
김남규 김남희 김나리 김다영 김대근 김태국 김태준 김
덕실 김도현 김동희 정리나 김영희 김미진 김미혜 김민
성 김민정 김보라 김보희 김보미 김서하 김선애A 김선
애B 김선옥 김선화 김설인 김성순 김성화 김소연 김
희 김수미 김수연 김수정 김수혜 김신 김아현 김연우 김
영미 김영실 김영애A 김영애B 김영옥 김영호 김예지 김
용일 김윤경 김은조 김은주 김은희 김이슬 김정은 김창
아 김정은 김창희 김주연A 김주연B 김지미 김지연A 김
지연B 김진영 김진희 김하영 김향 김현미 김혜선 김혜
영 김효진 나영선 노경화 류다희 류동경 류동철 류미애
류정철 옥소희 문영녀 문세진 문지애 문현숙 문희영 민
병관 민병식 박경림 박경민 박다운 박리려 일본박물관
후원회 박미지 박병화 박성희 박선녀 박선영 박성용 박
세림 박세미 박소연 박순채 박솔기 박영선 박영주 박영
자 박은경 박영순 박하연 박희정 방국철 방혜희 배재자
나 배종우 배준경 배현영 배은성 서희선 서은애 서정일
서종우 서하람 서희교 신운성은 성민혜 세종고 서금
손성근 손영주 손진경 손창남 송내현 송지영 송희경 신
경화 신명실 신성목 신종한 신하나 신혜나라 신호실 신
경열 심수영 심희정 안기영 안나래 안보미 안보영 안선
미 안순영A 안순영B 안정애 양노자 양수희 양창자 양태
화 양진정 양경희 양노경 양미경 양유순 양유진 양은주
양자후 양혜진 유복남 유성실 유영은 유덕향 유미소 유
소영 유현실 유희숙 유윤조 유진원 유소혜 유영주 유영
서 유윤주 유진 윤태경 윤현정 윤혜영 윤혜정 이가영 이
고은 이고은 이다연 이덕호 이동원 이영기 이미경 이민
동 이보란 이비람 이상미 이서희 이선수 이수희 이송원
이승호 이승환 이서라 이옥석 이은아 이민숙 이은정 이
재완 이정민A 이정민B 이정석 이정자 이현A 이주현
이준성 이준우 이진선 이진정 이창미 이태영 이형은 이
혜지 임미경 임수빈 임숙희 임은정 임주연 임주희 임태
님 장명지 장상언합희 장은영 장은희 장혜경 장혜원 전
지애 전지현 전희숙 전희원 전희주 장규용 정동환 정성
용 정설경 정승기 정예숙 정은정 정주라 정지영 정진숙
정현용 정혜화 조성숙 조희원 조재일 조정은 조현호 조
홍선 조희진 주지희 차길 차현희 차진숙 채영정 채윤정
채은s채채진 최경은 최교은 최희정 최수영 최희희 최
재숙 최혜원 최환희 카나야 카츠오 한고은 한미현 한수

이 현운선 한태(최혜송) 현현정 한혜린 한호준 허민지
허보연 허인영 홍순희 홍혜진 황원정 황정호 황지민 황
정정 황학희 황내성

5.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WHR)일본후원회 후원

NPO法人 ならん人情情報センター タナカ マサコ リ
ブインピース☆9+2.5 岡崎洋子 岡本二郎 岡部美枝
子 岡田雅定 高橋信 高瀬栄穂子 古川宝子 谷良子 久
保田康子 久野綾子 九重能利子 櫻井豊吉 山崎幸二
江沢子 宮吉つゆみ 宮村貴代子 崎山景 金田重 金榮子
大木和子 大野京子 大木一治 大丸光子 渡辺益代 藤本
正雄 蓮見幸恵 瀧尾英幸 劉成道 柳澤淳子 栗山清子
林博史 立花由美子 末岡久枝 木崎利夫 木塚和子 武
本民子 武田隆雄 文京文化フォーラム 女性労働研究会
半田隆 森原悦子 飛田雄一 山崎翼 山田規矩子 山田
昭次 森鈴子 森理恵 森永雅世 西亀湖子 西百合子
吉川幸 吉村恵子 石橋敏江 石下直子 石丸敏子 小田切
留剛 松本千賀子 宋美 松原秀臣 松浦賢治 穂積健児
岡部剛司 安部利信 岸本淳子 安吉玲子 岩崎文夫 野々
村敏 五十川つ信 遠藤和子 戸久戸子 戸崎峰子 藤岡
亮二 日本キリスト教団富田教会 畑田央子 庄山美津
子 長田栄一 田中直伸 折口晴夫 折井隆 井上洋 井上
豊 井前智子 丁照子 緒角友啓 佐藤明子 佐藤壽子 佐
万光 竹内三輪 中島俊子 中林猛 中野信子 仲宗根将二
中村猛 中村智子 真島富二 千葉詠子 千地健太 清水れ
い子 村上章 萩ルイ子 太田まり子 坂和優 坂詰美代子
平井一弘 花岡直子 河川真佐子

6. 컴퓨터 '영화의우리집' 후원

강성지 김원옥 김영현 김복동 김세연 김세훈 김소라 김
혜영 김형발 류성철 매향교회 박동태 박준원 서보익 손
무익 송정미 심해경 임수자 이기겸 이미경 이미영 이수
미 이수연 이연정 이재훈 이주선 이하나 일신산광교회
임병희 정명호 장성언 함석식 정재삼 정지영 주종택 진
호근 최서진 최영애 황규호 허윤근 홍일우 홍유지

7. 나비가금 후원

가와이노리코 경희회 강기근 강만경 강보경 강상진 강
선현 강수나 강순영 강운신 강유진 고영호 고은경 고은
별 고지연 공미란 곡수현 곡홍승 구달수 국제형 권자
인 권혜경 가성미 기타타라에구미 갈현욱 김경민 김경
수 김정일 김교은 김광삼 김남규 김동신 김동하 김무비
김영선 김영중 김명희 김민하 김미영 김민 김민선 김민
정 김민주 김민중 김민지 김민호 김병해 김복중 김삼미
김신진 김선희 김실안 김성호 김수용 김수지 김수진 김
순영 김시연 김예지 김요한 김원범 김유선 김은희 김정
은 김정진 김중영 김진돈 김진광 김진보영 김창록 김
진 김철수 김준환 김판수 김하나 김해정 김범 김현중 김
형일 김혜선 김혜원 김희라 나산하 남민 노경수 노승아
노원일환 노유미 노혜경 니시무라야사요시 데라시타
케시 도지희 마기원 마츠무라노리코 모구윅 무영 문성
근 문용표고재강강석빈 문일형 민경 민한기 박경숙 박
길자 박영숙 박무성 박보노 박사영(이재원) 박선주 박서
창 박소정 박순성 박에스더 박완실 박유리 박은희 박자
하 박정숙 박종화 박준규 박지혜 박진아 박진원 박찬성
박치은 박찬정 박학내 박학남 박희석 박희진 배영운 배
운선 배운주 박승기 박현진 석영철 석희진 선조은 세노
기요 소코이박정은 송윤송 송민중 송병재 신가정 신은
영 신영희 신동원(한준원) 신해영 심재용 심재은 아카이
마야츠코 안정숙 안호진 안대만 안승희 양승태 양영호
양미나 양유경 양정숙 양정자 여연정 영희철 오영주 오
영미 오지외타카시 오홍석 오키나와유카사츠키 오지혜 오다
허루키 율화영 우복남 원희자 위정미 유길선 유미래 유
미향 유승원 유은숙 유철남 윤경순 윤미향 윤병만 윤서
라 윤아람 윤영주 윤정옥 이가영 이강애 이경록 이금송
이경옥 이기면 이동춘 이동희 이만희 이미나 이민선 이
병연 이서미 이상하 이상미 이우정 이은정 이은성 이은
표 이재환 이정민 이정미 이정화 이종호 이주호 이지유
이창근 이현숙 이호숙 이효재 임진우 정보윤 정승영 정
영태 정희석 전용진(송지화) 전인선 전지연 정내현 정
다운 정실경 정일권 정재은 정재형 정주은 정혜주 정주
준근 조덕래 조서연 조선희 조성식 조소현 조주숙 조
유자 조은정 조주현 조태진 조현민 조혜경 조홍찬 지금
구 지현주 차재현 차근모 차재영 차재현 차정환 차정순
최가자 최민경 최영옥 최혜지 최용원 최이수 최홍보 최
진술 최진호 최종업 초보카와히로코 쿠치나츠윅스 후
유네 탁창우 하대경 하영아 한상대 한성훈 한성문 한은
정 한민규 하금선 허은영 황순빈아 황순희 황윤희 후지
타카즈미 84동영여고벤드 AG02 ALPHA FUJINAGA
Kabuter KALKA EM KAN-WIN LACLARRE LALHE
On History통아리 강동구청모프동아리C&F 경성우역사
고양아이쿱 공군9630부대 꽃자활작은학교 광영여고학
만인나비달기운동본부 광주무진교회 김준수부흥회 국
단고래 고마프레스 골나지않은정장삼우회 나라여생
연구회 나비귀결이만대 나비기금8 나비구대안학교 노성
워터 당진문화이화회 독산고예그리나 독말개신교목회
저독일북부지역 동산나비 마리몬도 만원사레 오미치
문순 박문여고 법무법인새움 베를린모금 북경고 부러
방동맹나라현원합회여성부 부천시 일본국'위안부'소
상권접촉신원회력 부천시만민합회 북내어린이영양원
창조고분부백만나비달기 비제이이크로비 상성원(주)
22 서울자치유치원에서전한 서울생애 서울아이리움

서초고학생회 정신교지편집위원회 성심수녀회소파센터
수요시위모금 수원효원초 신농중반크반 아오레파시픽
아시아인권 양구고인문반 여성평화외교포럼 영등포여
고 오케이티엔티 우리동네청년회 위안부'문제해결을위
해의견서가결을추진하는모임 위풍당당수원화 이슬화장
품 이화여고총학생회 인명여고 인명여고3-10 일본군'위
안부'문제해결간사이네트워크 일본나비기금집회모금 일
본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후원회 작은교회박물관 장일고
장곡중학교 제주평화나비 중앙대청우회고수 청년나비
충북대물라이트 한국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살림아
이들 堀塚亮二 石下直子 石橋敏江 石橋敏江 石丸敏子
五十川トセ 井上淳 井前智子 岩崎文夫 遠藤和子 大
野至子 岡田雅宏 岡原美知子 岡部美枝子 小田切信剛
折口晴夫 金同重 栗山満子 佐方光 佐藤明子 佐藤みつ
子 沢村和世 穴戸峰子 穴戸久子 清水れい子 庄山美香
子 世界新報日事務所 干地健太 高梨晃嘉 高橋信 高橋
尚子 立花由美子 田中直伸 千葉諒子 曹順子 富田孝正
中島俊子 仲宗根將二 中野佳子 中林猛 西村恵子 蓮見
幸恵 花岡麻子 林博史 古川宏子 文京文化フォーラム

女性労働研究会 真下久子 松浦賢治 東岡久枝 松原秀
臣 松本 直子 宮永真代子 宮西いづみ 宮本節子 森理
恵 森永雅彦 山田規矩子 リビーンピース☆9+25

8. 특별기금

[6월 미국캠페인 트위터모금]

강대준 김원옥할머니께 김창희 김현수 다음희망해모금
마리몬드 박종은 배지는 변여진 석조은
- 미디어몽구 모금

@risan01 JMA2MARO premanen25 강경주 김동진 강
미경 강수진 강우성 강지선 강지영 고은별 공나현 공선
희 박상규 박성오 권영해 권오진 권창훈 권현정 가루 길
영순 김은정 김가옥 김두원 김미애 김부신 김선환 김선
희 김수희 김영애 김영준 김영한 김영혜 김유진 김윤경
김은지 김의경 김안경 김인주 김종덕 김종업 김지수 김
자유 김태자 김한규 김현정 김혜원 남형주 류태규 모창
아 문경선 저은주 안성식 박귀선 박말남 박범수 박상미
박성희 박소영 박영수 박유경 박종훈 박주희 박한숙 박

형진 백두연 백은옥 서봉구 서봉규 서자영 손규태 송유
인 신선희 신은희 신재덕 신철희 심해린 안효성 양선호
양재종 양은숙 여예림 어을락 엄태은 여연주 연승훈 오
정은 원현성 유금숙 유금정 유진환 윤대홍 윤옥현 윤혜
원 윤호성 이경선 이경희 이경희 이동현 이레은 이미숙
이성재 이승이 이수용연악아빠 이승진 이여진 이영희
이은혜 이인숙 이정원 이정희 이주란 이자현(최지수) 이
지현 이창형 이준도 이현주 이혜정 자연화 장대록 장미
정 장수진 전윤미 정동민 정보라 정소연 정종민 정지영
정진원 정찬미 조용수 조유찬 조은정 조하나 조화정 지
현희 조록 최경자 최문영 최이미 최선민 최승미 최우정
최재은 최희자 한그루 한성락 황선희 황혜원 황효진 건
강하세요 건강하다네요요 건강하다네요요요요요요
님경비 너무약소합니다 너무적어서죄송해요~ 늘음원
합니다! 언길건강조심하세요 멀리가는항기 몸구씨향내
세요 바스한것은가파 사랑과진실 엄마물고기 적게나마..
작지만받아주세요 잘 다녀오세요 잘다녀오세요 잘다녀
오세요^^ 잘다녀오십시오 적어서죄송해요 죄송합니다
포금이어서죄송 뽀뽀이라. 편하다네요요 포도나라 할

머니건강하세요 할머니힘내세요! 할머니힘내세요_SA
항상건강하세요 힘내세요 힘내세요!

[9월 유럽캠페인 트위터모금]

건강하세요 김서경 김은성 김은혜 꼭일어나세요 마리몬
드 박철호 서문욱 양용석 오한숙희 이현재 홍인기

[베트남 우물활동 모금(나비기금)]

김판수 박하연 강운신 탁창우 장민고학생들 블루밍패션
노혜경

[베트남 장학금 모금(나비기금)]

KBS월드 교통방송 극단고래 컷전문화공감센터 강북
어린이성금 불교교리장학재단 원주평화회의소년상간림
법사민추진위원회 이재수 정단희
희망나비

(2014.11.1-2015.10.31)

2015년 한해, 정대협 활동을 위해 희망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대협은 여러분의 끊임없는 관심과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2016년에도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지지를 보내주세요.

정대협 활동

수요시위 및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을 위한
국내외 활동과 쉽터 '평화의 우리집' 운영 및
생존해 계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대협 활동에
쓰입니다.

| 후원계좌 |

국민은행 011-01-0384-327
신한은행 100-011-870650
(예금주: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박물관 운영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운영과 관련 연구/
조사/교육 등의 사업을 위해 쓰입니다.

| 후원계좌 |

국민은행 069101-04-194282
신한은행 140-003-119353
농협 001-01-322181
(예금주: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나비기금

일본정부로부터 법적 배상을 받으면 전시 성폭력 여성들을 위해 전액을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힌
김원옥할머니와 김복동할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콩고와 베트남 등 전시 성폭력 여성을 돕는 후원금입니다.

| 후원계좌 |

국민은행 069137-04-010752(예금주: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나비기금))

CMS 후원신청

매달 자동이체를 통해 일정금액을 후원하는 편리한 방법

*정대협 홈페이지 www.womenandwar.net -> 후원과 참여 -> 재정후원

CMS후원 관련 문의는 war_women@naver.com 또는 사무처 02-365-4016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후원금은 연말정산시 세금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5年の慰安婦活動に心から敬意を表し、これからますます応援します！
「慰安婦」問題解決オール連帯ネットワーク

25년간의 정대협 활동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여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위안부 문제해결 올연대네트워크

할머니들의 어인,

정대협 실무자들의 친구,

수원시민신문이 정대협 25살을 축하합니다

수원시민신문 www.urisuwon.com



“일본정부는 전쟁할 생각 말고

우리 문제 해결해라.”

-길원옥 할머니-

25년간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본회 발족 23년, 후쿠야마에 와주시고 협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본정부에 대해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활동을
계속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일본군'위안부'문제를 생각하는 모임 후쿠야마

▶ 2015.8.12 기림일연대행동 (후쿠야마역전)

일본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라!

사무금융노조는 우리의 요구가 이뤄지는
그날까지 연대하고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한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정대협과 함께 합니다.



(주)한국자산관리연구소
Wealth Management Korea Institute, Inc.

(http://www.wmkr.or.kr)

한국자산관리연구소(한자연)는 면밀하고 신중한 사고를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인 자산관리기법을 연구하여 회원님들의 삶을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정대협 25주년 축하드리며
서산에서도 평화의 나비가
일본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강력히 요구하며
평화와 통일의 한반도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서산평화의소녀상건립시민추진위원회〉



정대협 창립25주년 축하합니다!



어려운 시대인 만큼 한일시민의 연대를 강화하자!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사실을
차세대들에게 가르치자!

2015년 8월 WAM도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개관 시간: 수~일요일 13:00~18:00 ■휴관일: 월요일·화요일·공휴일·연휴일
■입장료: 18세 이상 500원 / 18세 미만 300원 / 초등학생 이하 무료

Women's Active Museum on War and Peace(WAM)
AVACO Bldg. 2F, 2-3-18, Nishi-Waseda, Shinjuku, Tokyo 160-0061 Japan
TEL: 03-3203-4633 FAX: 03-3203-4634
wam@wam-peace.org URL: <http://www.wam-peace.org/mam/>

wam

アクティブ・ミュージアム
私たちの戦争と平和博物館
women's active museum
on war and peace



宋神道さんと一緒に

「慰安婦」問題解決のため、
日本の地で全力を尽くしていきます。

송신도 할머니와 함께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땅에서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在日の慰安婦裁判を支える会
재일조선인 '위안부'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일본정부는
구체적인 가해 사실을
인정하여
성실한 사죄와 배상을!



축
25주년

日本軍「慰安婦」問題・関西ネットワーク
일본군 '위안부' 문제 · 간사이 네트워크

[hp] www.ianfu-kansai-net.org [blog] ianfukansai.blog.fc2.com



나비들이 힘내서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김복동 할머니-

전후 70년

할머니...
우리들에게 보내주시는 변함없는
웃음과 한을 가슴에 새겨
하루빨리 아베정권 퇴진과 '피해자' 문제해결을 향해.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해 의견서가결을 추진하는 모임

축 창립 25주년!

귀 단체 활동에
진심어린 존경과 연대의 뜻을 표명합니다.

역사의 날조를 규탄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전국행동

<http://restoringor1000.info/main/index.html>



“묵묵히 할머니 곁을
지킵니다.”

-휴머니지먼트-

아티스트 휴머니지먼트, 음반제작, 공연/축제기획, 시스템 및 행사용품렌탈



소녀가 할머니가 될 때까지,
할머니가 일본대사관 앞에서
스물 네 번의 겨울을 보낼 때까지,
일본정부도, 한국정부도
반한 것이 없습니다.

할머니에게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광복 70년,
이제는 할머니에게
진정한 광복의 기쁨을
안겨드려야 합니다.
일본정부의 '공식사죄' 법적배상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국회의원 홍익표-

전쟁과 폭력 없는 사회를 향해 평화 · 인권이
꽃피는 희망찬 미래를!
우리는 할머니들과
함께 합니다.



헌법9조-세계로 미래로 연륙회(9조연)

'위안부' 문제를 넘어
날아오르는
정대협 나비에 행복을!

-츠보카와 히로코-



“우리 아이들은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

- 길원옥 할머니 -



마리몬드는 우리 할머니들을 존경합니다.

마리몬드는 디자인 상품과 콘텐츠를 통해 존귀함을 회복합니다.

첫 번째 동반자로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알리고 있습니다.

www.marymond.com

 Marymond